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 호 1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 호 (240)

1964년 1월 (하)

차 례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하여

하 앙 천

1

오늘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통일 문제보다 더 숭고하고 긴박한 민족적 과업은 없다.

통일이 되여야 한 민족이 한 강토 우에서 만민이 희망하는 지상 락원을 건설할 수 있고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실현할 수 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정확한 방침이며 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원칙이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이 방침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남북 총 선거에 의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남북 총 선거가 불가능한 형편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과도적인 련방제를 실시하거나 혹은 남북 경제 문화 교류를 먼저 실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 번 제기하였다.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하여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은 아직까지 긍정적 반응이 없었다.

지난 번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공동 련석 회의에서는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로부터 온 불행과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련석 회의는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의 체결,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혹은 그 이하로의 축소, 남북 간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 기자, 언론인, 학술 연구를 위한 인사들의 래왕, 예술단, 체육단의 호상 교류, 경제적 련계의 회복 등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제기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남조선 동포들과 정계 및 사회계 인사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제안은 조국의 통일이 외세의 간섭 없이 어디까지나 민족 주체적인 력량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성취되여야 한다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표시하고 있으며 파국에 처한 남조선 사회와 도탄에 빠진 인민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여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절박한 사활적 리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제안은 통일 문제 해결의 불가결한 요건으로 되는 남북 간의 긴장 상태 제거와 호상 리해와 민족적 뉴대를 회복하기 위한 뜨거운 동포애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 간의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남북 간의 경제적 련계의 복구와 함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남북 간의 장벽을 터쳐 놓는 데 있어서 구체적 조치로 되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첫 걸음으로 된다.

그러나 19 년간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제는 동족 간의 접촉과 의사 소통을 방해하며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이

달성한 빛나는 건설 모습을 외곡 선전하고 기만 중상하는 등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반공》 사상을 고취하며 민족 간에 반목, 질시와 불화를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였다.

오늘의 현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적 불화와 반목의 씨를 제거하고 남북 간의 호상 리해를 도모하며 민족적 화목과 단결을 이룩하는 것이 통일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민족적 화목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북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실현하며 량단된 남북 간에 문화 교류의 다리를 놓고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의심할 바 없이 량단된 남북 인민들의 혈육의 정을 다시 이어 놓고 민족적 신뢰와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외국의 간섭 없이 조선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2

남북 간의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 전통을 수호하고 그를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 상태의 지속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재난과 불행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에 의하여 고유한 민족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이 여지 없이 파괴 말살되고 자기 민족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비운을 면치 못 하게 할 것이다.

이 비참한 현실과 위험한 전도에 대하여 조선 사람치고 누가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하루 바삐 통일을 위하여 분발하지 않겠는가!

우리 민족은 산고 수려한 조국 강토에서 수천 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 피'줄기를 이어 살아 온 단일한 민족이며 사회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불가분리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언어와 풍습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만 고유한 정신적 및 문화적 재부들을 소유하고 있는 슬기롭고도 문명한 민족이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 신라의 첨성대, 백제의 벽골제, 고려의 청자기 등을 비롯하여 우리 조상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과학적 및 예술적 천재를 발휘하였으며 13 세기 초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15 세기에는 우수한 민족 문'자를 창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 문화 발전에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우리의 조상들은 훌륭한 민족 예술과 문학을 창조하였으며 재능 있는 수 많은 과학적 발견과 발명들을 함으로써 세인을 경탄시켰다.

조국 청사에는 16 세기 중엽의 탁월한 철학자 서 경덕의 선진적 유물론 사상인 《기》의 불멸론과 의학자 허 준의 《동의 보감》을 비롯하여 18 세기의 우리 나라 대문호 박 연암의 불멸의 창작들과 정 다산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친 거대한 과학적 업적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이러한 찬란한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오늘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가 그 얼마나 중대한가!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문명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기의 야만적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며 우리 나라의 찬란한 민족 문화 유산을 여지 없이

파괴 략탈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귀한 문화 유적과 유물들은 미국 침략군의 땅크와 군화 밑에서 무참히 파괴 소실되고 있으며 수천 수만 종에 달하는 귀중한 유물들이 미국 날강도들에 의하여 략탈 당하고 있다.

미제는 신라와 리조 시대의 유물만 하여도 3만여 점이나 략탈해 갔으며 《리조 실록》, 《동의 보감》 등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과학,문학 서적들과 국보급의 희귀본까지도 수천 점이나 강탈해 갔다.

우리 선조들의 웅장하고 우아한 건축 미술을 자랑하는 불국사와 덕수궁 등을 비롯한 수 많은 고대 건물들이 미국 양키들의 유흥장으로 전변되고 있으며 문명한 인간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패덕 패륜의 란무장으로 화하고 있다.

외세에 굴종하는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의 부식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예속화 정책과 아울러 미제의 일관한 식민지 문화 정책이다.

그들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반동적 사상 침략 기구를 설치하고 남조선의 출판, 보도, 교육, 문학, 예술 등 모든 수단들을 동원 리용하고 있다. 《원조》와 《자선》의 미명 하에 교회, 학교, 병원들을, 미국을 숭배하는 노예 사상 보급에 리용하며 류학생, 관광단,《친선》 방문 등 《문화 교류》의 형식에 의하여 양키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1953~1960 년간 미국을 방문하여 기만 선전을 받은 남조선 문화인들이 2,300여 명이고 1963년 1~10월까지 미국에서 문화 침략의 사명을 띠고 남조선을 래방한 자가 무려 8,300여 명이다.

오늘 남조선 천지에는 극단의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한 무제한한 치부욕과 황금 만능주의, 모험적인 야만성과 인간 증오 사상, 부화 방탕과 극치의 색정주의 등으로 일관되여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가 범람하고 있다.

이 《생활 양식》, 이 《문화》는 다름 아닌 임의의 모든 행동도 자체의 리득으로써만 정당화하는 실용주의와 객관적 의의를 가지는 모든 도덕 규범들과 원칙들을 전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불안과 공포, 죽음을 강요하는 실존주의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의 우위를 주장하는 프로이드주의 등 미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이며 파렴치한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제국주의 야만들에 의하여 우리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가 외곡되고 유린 말살되고 있다.

문학에서 《무전통론자》들과 《모방 문학론자》들은 우리 나라 민족 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심청이는 조선 녀자가 아니요》,《금오신화》는 《료재지이》의 모방이라고 망발하고 있다.

리 도령이 권총을 차고 춘향이가 굽 높은 구두를 신은 해괴망측한 형상이 공공연하게 무대 우에 나타나기도 하고 《바보 온달》, 《원술랑》 같은 고전 영화에 라체씬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민요 아리랑은 《아리랑 만보》로, 도라지는 《도라지 만보》로 변조되고 가요는 거의 맨스곡으로 변조되고 있다.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의 력사를 통하여 가꾸어 온 우리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여지 없이 유린하고 있다.

인간 증오 사상과 말세기적인 부패와 타락을 설교하고 있는 《깽》 영화와 퇴폐적인 문학 예술, 광란적인 쟈즈 음악과 라체 무용 등의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의 침습은 남조선 사회를 헤여날 수 없는 범죄와 패덕 패륜의 막다른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 심지어 어린이들에게까지 인간의 리성을 부인하며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투쟁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체 인간의 권위와 전통을 부정하며 오직 무제한한 개인적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전률할 현상을 강요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세계관이 형성되지 못 한 학생 청소년들 속에서는 색정과 타락, 비애와 절망, 사기와 협잡, 질투와 모해 등의 참을 수 없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범죄 행위가 늘어 나고 속세를 비관하는 염세 사상과 삶을 저버리는 자살 참극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다.

남조선 《실화》 잡지에는 《전락》,《이방인》 등 허무주의적 소설을 탐독한 어느 학교 녀학생들은 《우리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생에 대하여 비관한 나머지 음독 자살한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 서울 남대문 시장에 출몰하는 《5 인의 해병》이라는 불량 소년들로 구성된 범죄 단체는 그 이름부터가 《깽》 영화 제목 그대로라고 한다.

천진란만한 청소년들이 저도 모르게 불의의 길로 빠져 들어 갈 때 자녀를 둔 부모된 자 그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양키 문화의 후과는 이것 뿐이 아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민족 어휘와 언어까지 퇴색되여 외래 어휘로 바꾸어지고 있으며 우아한 조선 녀성들의 몸단장 대신에 《국적 불명》의 몸 치장과 《미국식 옷차림》을 모방한 《개량복》이 활개치고 있다.

민족 주체 의식을 좀먹고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의 악독한 후과를 개탄한 남조선의 한 잡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기의 것이 남의 것에 못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출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머리칼도 노랗고 눈도 쌍거풀이고 코도 높으고 앞가슴도 불쑥하고 했으면 해서 온갖 약품과 수술과 덧붙임을 다 마련해서 양인종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산다면 분명히 이 민족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녀원》 1963년 2 호)

더우기 통분할 일은 오늘 남조선에서 일제 강점 시기의 반동 문화가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 전 일제의 《동조 동근론》, 《내선 일체》, 《황국 신민화 운동》 등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고귀한 민족 문화 유산은 여지 없이 외곡 파괴되였다. 우리는 제 나라 력사를 못 배우고 제 나라 말도 사용 못 하고 심지어 조상 때부터 타고 난 자기 성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는 망국노의 설음을 근 40 년간이나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그런데 오늘 미제의 충복 박 정희 매국 도당은 《한 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면서 패망한 일제 세력에 아부 굴종하며 일본 독점 재벌의 경제적 재침을 허용하고 일제 반동 문화의 재생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일제의 조선 강점 하에서 부르던 부패 타락한 노래들이 남조선의 거리들과 골목들에서 그대로 불리여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수입한 색정 영화들과 반동 문학 서적들이 대량 출판되고 있으며 《왜음》과 《왜색》이 철을 만난듯이 번성하고 있다. 《8월 보름날의 차집》,《행복한 고독》 등 퇴폐적인 일본 영화가 또 다시 인기를 끌게 되고 《홍또야 우지마라》, 《목포의 눈물》, 《오도끄노 부루스》 등 일제 시기 부르던 눈물과 비애로 가득찬 류행가들이 어느듯 소년 소녀들의 입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인제는 일상 회화에서도 《미스터 김》,《미스터

리》와 함께 《긴상》,《리상》이 되살아 나고 있는 한심한 처지다.

남조선의 어느 소설가는 《과거 36 년간 정치적 식민지였던 것이 인젠 문화적으로 자진하여 식민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통탄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의 범람, 일본 반동 문화의 재생으로 인하여 빚어 내는 죄악의 후과는 단순히 오늘의 재액과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위협하게 된다. 조상 전래의 고귀한 전통을 반동 사상과 양풍의 침습으로부터 수호하며 아름답고 좋은 것은 도로 찾아 내며 단일 민족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목전 긴급하고 중대한 민족적 임무다.

조선 사람치고 제 정신을 바로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조국은 통일되여야 하며 민족은 단결되여야 한다는 철칙을 바로 인식할 것이다.

력대로 우리 민족은 장기간 한 강토우에서 화목하게 살아 온 단일 민족이며 단결력과 투쟁 정신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 선렬들의 애국주의 사상과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간악한 외적의 침입으로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한 사람같이 단결하여 거족적으로 궐기하였으며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 상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등 애국적 명장들과 민족적 영웅들이 발휘한 위훈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갑오 농민 전쟁, 반일 의병 투쟁, 3.1 인민 봉기, 6.10 만세 시위, 광주 학생 사건 등은 모두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시위한 것이다.

청년 학생들이 적수공권으로 리 승만 반동 통치를 타도한 4.19 인민 봉기에서 이것이 실증되지 않았는가!

특히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인 공산주의자들은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손에 무장을 들고 15 개 성상의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영예를 고수하고 우리 민족의 애국 전통을 집대성하였으며 해방 후 오늘의 승리의 대로를 열어 놓았다.

이러한 애국주의 전통과 투쟁 정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외세에 의존하며 미제의 압박 밑에서 치욕의 생활을 계속하여야 하겠는가!

미제는 자기의 조국도 민족도 문화도 전통도 없는 해적의 후예다.

그들의 조상은 겨우 15~16 세기에 이르러 아메리카 원주민을 야만적으로 정복한 노예 상인의 력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는가!

20 세기 50 년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그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기간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침략 전쟁의 실패를 자인하고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던가! 무엇 때문에 아직 《숭미》, 《공미》 병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가?

조상 때부터 물려 받은 투쟁 정신과 오늘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단련된 굳은 지조와 결의가 모든 조선 사람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우리 앞에 조성된 난국을 능히 타개할 수 있다.

전체 조선 인민 앞에는 민족적 량심과 애국적 지조를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장래와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 상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부과되고 있다.

남북의 접촉과 문화 교류는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 전통을 수호하

고 그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초보적 조치이다.

3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성숙된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 문화 교류와 협조는 언어와 풍습과 피부색이 다르고 제도와 사상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각이한 민족들 간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국제적 조류로 되고 있다.

동방에서 서방에로, 북극으로부터 남극으로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서는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적인 협조가 실현되고 있다.

세계 각국 인민들과 민족들의 이러한 문화 교류와 협조는 세계 문명과 문화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개별적 나라들과 민족들의 문화 발전에 있어서도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세계 각국 인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비단 문화 발전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파괴자인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제 인민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거대한 직접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피부색과 생활 양식까지도 전혀 다른 각이한 인민들과 제 민족들 간에서도 호상 접촉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 시기에 무엇 때문에 통역도 번역도 필요 없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가진 우리의 단일한 조선 민족끼리 접촉과 문화 교류가 실현될 수 없겠는가.

더우기 우리 나라의 남북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분렬 정책으로 인한 엄중한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제거하기 위한 민족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이상 무엇 때문에 주저할 수 있으며 그를 실현하지 못 할 리유가 또한 어디 있겠는가! 또한 남북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적 전통과 고유한 민족적 특성에 의한 우리의 통일적 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고 있는 이상 그 어떠한 자가 감히 이를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단일한 민족에는 두 개의 문화가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통일은 문화의 통일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19 년간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파쑈 테로 통치는 자기들에게 빈궁과 억압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발 밑에서는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

이리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 합작의 요구는 더욱더 증대되여 가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 밑에 전후 재'더미 속에서도 일떠서서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시일 내에 경제를 복구하고 우리 인민이 모두다 자유롭게 살며 일하며 공부하며 문화 생활을 즐기는 지상 락원을 건설해 놓음으로써 우리 나라의 민족 문화를 빛나게 계승 개화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북반부 인민들은 생산 수단과 사회의 모든 물질적 부의 소유자일 뿐

만 아니라 정신적 및 문화적 재부의 완전한 소유자이며 주인으로 되고 있다.

리 승기 박사와 김 봉한 교수의 과학적 연구 성과는 남반부가 아니라 바로 공화국 북반부와 같은 환경과 조건 하에서라야만 비로소 세계 1등급의 비날론 공장을 만들어 우리의 인민 경제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경락 계통의 전모를 밝혀 내는 위대한 업적으로써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일대 전환을 가져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량식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체육, 문화 예술이 세계적으로 절찬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번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가네포에서도 실증되지 않았는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장성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 공화국 정부의 국내외적 위신의 제고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더욱더 고무적 영향을 주며 외세 의존 반대, 자주 자립, 주체 의식의 확립, 민족 통일과 남북 합작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한국 일보》는 외세에 의하여 국내 정치가 좌우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정신, 자주 판단 그리고 자주 처리만이 자주 민족 국가를 자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 신문에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화적 소지와 주체성을 튼튼히 마련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남의 것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모 대학 교수는 《주체성, 이는 곧 민족 정기다. 만일 이 주체성으로부터 유린된다면 그 어떤 사상도, 기술도 우리 것으로 살려질 수 없다.》라고 민족 문화 발전의 방향을 옳게 제기하였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남북의 분렬 정책이 시정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예속과 파산을 면치 못 할 것이며 남북 통일이 이룩됨으로써만 한국을 안정시키고 한국 국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정당한 주장을 내놓았으며 어느 한 신문에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앞으로 달 나라에도 갈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지척지간인 자기 고향에는 갈 수 없는가?》고 반문을 한 후 《휴전선이 가로막혀 숲 속을 오가는 짐승 만큼도 못 한 형편》이라고 량단된 민족의 비운을 통탄하였다.

남조선의 한 시인은 이러한 절박한 념원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 《다리를 놓자. 다리를 놓아야 한다.
> 우리가 사는 일은 다리를 놓아야 한다.
> 너와 나의 마음에 다리를 놓자.
> 휴전선 우에
> 서울과 평양에.
> 가로 세로 거미줄 감기듯.
> 하늘의 별이 얽히듯
> 이렇게 다리를 놓아 가면
> 언제인가 하나가 되리
> 우리는 하나가 되리》

시 《다리》에서

남북의 문화적 접촉과 련계가 얼마나 절박한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지향인가는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가 지난해 5월에 개최된 홍콩 회담을 앞두고 이 회담이 《그 결과가 어찌되건 올림픽 문제가 여기까지 이른 것만으로도 하나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한 피'줄의 자손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 왔다.》(《한국 일보》 1963년 4월 23일 호)고 강조한 사실에서도 명확히 표시되고 있다.

작년 말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 인사들 및 사회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나간 후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절박성은 각계 각층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어 남조선의 일부 《국회의원》까지도 남북 간의 언론인 왕래와 서신 교환만이라도 시급히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나서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팽배해진 대중의 지향과 그를 실현코저 하는 그들의 인내성 있는 투쟁은 오늘 남북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현실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이 요구의 실현은 대중의 단순한 지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남북이 접촉하고 있는 실천적 체험에 의해서도 완전히 성숙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48년 4월에 있은 남북 제 정당 사회 단체 련석 회의의 력사적 경험과 최근 로잔느와 홍콩에서 한 자리에 모여 앉은 남북 체육 전문가들의 생생한 체험에 의해서도 그것은 확증되고 있다.

이리하여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인 남북의 접촉과 경제 및 문화적 교류의 실현은 단일 민족의 통일적 문화 발전을 위한 억제할 수 없는 요구로 되고 있다.

남북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서로 접촉하여 민족 경제의 통일적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고유한 민족 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 토론도 하며 남북 간의 예술단과 체육단의 정상적 교류를 실현함은 물론 국제적 축전과 체육 축전에 공동으로 출전하기 위한 공동 련습과 훈련도 하며 남북의 청년 학생, 교육자들이 공동으로 되는 기념 집회, 강연, 좌담 등을 조직하며 서로 관광단도 파견하여 금강산이나 해운대의 탐승도 조직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문제는 우선 한 자리에 모여 앉아야 한다. 만나서 흉금을 털어 놓고 의견을 교환하여야 더욱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며 상설적인 기구도 내오게 될 것이다.

과학, 문화, 교육, 보건 등의 각 분야에 걸치는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 오게 할 것이며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결정적인 유리한 국면과 광활한 새 전망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이와 같이 전체 조선 인민과 특히는 남조선 인민들의 절박한 사활적 요구로 되여 있으며 그의 실현의 현실적 제 조건들이 이미 충분히 구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은 그를 악랄하게 방해하여 나서고 있다.

남북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은 오직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방해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반부의 전체 애국적 력량은 일치 단결하여 조국 통일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총 궐기하여야 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력량은 적들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도 단호히 물리치고 더욱 과감히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 사태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애국적 민주 력량이 부단히 확대 강화되는 위력 앞에서 쇠망하여 가는 반동 세력은 더욱더 당황망조하고 있으며 위기와 궁지에 빠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의 남조선 혁명 력량은 남북 합작과 평화적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전체 애국적 력량을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기치 하에 굳게 집결시키고 앙양되는 인민들의 투쟁 파도를 통일 위업의 달성에로 더욱 세차게 밀고 나아가야 한다.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숭고한 애국 투쟁은 오늘 전세계 인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파나마 전국의 도시들과 마을들은 반미 투쟁의 세찬 불'길에 휩싸였으며 미제 침략자들의 류혈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인민들의 영웅적 항쟁은 계속되고 있다.

격노한 파나마 인민들은 그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정체를 날날이 폭로하고 미국 기관들을 짓부시며 싸우고 있고 파나마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운하 지대의 《영구 조차권》을 강요한 《파나마-미국 조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령토 완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애국 투쟁이며, 파나마 인민들의 가슴 속에 맺힌 민족적 울분의 폭발이며, 파나마에서의 진정한 민족적 독립을 위한 운동의 새로운 발전이다.

계기와 원인

파나마 인민들의 금번 반미 애국 투쟁은 지난 1월 9일 운하 지대에서의 국기 계양 사건을 계기로 하여 폭발하였다.

운하 지대에서의 파나마의 주권을 인정할 데 대한 파나마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미국은 이미 1962년 10월 29일 운하 지대 관리 중심지인 발보아 언덕에 있는 행정 기관 건물의 정면에 파나마 국기를 미국 국기와 동시에 계양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1963년 1월에는 운하 지대에서 미국 국기가 계양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파나마 국기를 계양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민족적 존엄을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에서의 거대한 성과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최근에 와서 이 약속을 묵살하고 파나마 인민들의 면전에서 공공연히 미국 성조기만을 띄웠으며 파나마 국기를 동시에 계양하라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총탄으로써 대답하였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파나마 정부의 요청》이라는 허위 날조를 조작하여 미군을 동원하고 대서양의 파나마 앞바다에 순양함을 대기시키는 한편 운하 지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 1,200 명의 증원 부대를 파견하면서 땅크와 장갑차까지 사용하여 적수 공권의 파나마

인민들을 무참히 사살하는 범죄적 행동을 서슴 없이 감행하였다.

이것은 파나마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켰으며 그들의 투쟁을 전국적인 반미 폭동으로 급격히 전화시켰다.

처음 무력에 의한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던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사태의 이러한 급격한 진전에 극도로 당황 망조하여 사건의 진상을 극력 외곡하며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을 회유 술책으로 마비시킴으로써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 나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는 파나마 문제를 그들의 침략 도구인 《미주 국가 기구》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케 하기 위하여 이 기구의 《평화 사절단》을 파나마에 파견함으로써 마치도 자기들이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을 조성하려 하고 있으며 우선 외교 관계를 재개할 것만을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그들의 강점을 기정 사실로 만들며 관계를 흐지부지하게 만듦으로써 이 지대에 대한 《영구 조차권》을 고수하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그들은 이 흉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운하 지대에 자기 나라 국기를 계양한 파나마 학생들이 시위를 평화적으로 끝냈더라면 파나마 위기는 아마도 회피되였을 것》이라는 등 책임을 파나마 인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위기가 《공산주의자들의 작간》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는 허구를 꾸며 대고 있다.

결국 파나마 인민들이 자기들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학살 만행이 감행되여도 참아야 된다는 것이며 그들이 자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한 미제를 반대하여 궐기한 것이 잘못이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행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제의 강도적 론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파나마 인민들의 이 반미 애국 투쟁은 결코 일시적 감정의 로출도 아니며 국기 계양 사건으로 하여 초래된 우연적 현상도 아닌 것이다.

국기 계양 사건은 사건 발단의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며 원인은 보다 심오한 데 있다.

미제 강도들은 계기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심오한 원인을 엄폐하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장구한 기간 파나마의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감행하여 온 미제의 침략 정책에 있으며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에 대한 그들의 쌓이고 서린 울분의 폭발이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파나마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수십 년간이나 파나마 운하 지대를 강점하고 이 나라의 존엄을 침해하여 왔으며 파나마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왔다.

실로 20 세기의 파나마 력사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침략의 력사이며, 착취의 력사이며, 그들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원한의 력사였다.

미제는 20 세기 초부터 파나마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그들

은 1903년에 예속적인 《파나마-미국 조약》을 강요하여 파나마 운하와 그 량안의 각각 8 키로 메터에 달하는 령토를 《영구 조차지》로 탈취한 이후 이를 파나마와 나아가서는 라틴 아메리카 침략을 위한 거점으로 리용하였으며 새로운 치부의 원천지로 전환시켰다.

파나마 운하를 독점한 미제는 이 운하에서 매년 1억 딸라의 거대한 리윤을 얻어 냈다. 그러나 파나마가 받는 금액은 단 193만 딸라에 불과하다.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은 운하 지대에서 파나마인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하여 막대한 착취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나마 경제의 명맥까지 틀어 쥐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파나마 인민들은 이 운하를 미국에 빼앗긴 것으로 하여 60 년 동안이나 가혹한 략탈을 당하여 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겪어 왔다.

이로부터 파나마 인민들은 오래 전부터 미제의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운하 지대의 귀속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 왔다.

특히 1956년 7월 영 불 제국주의를 구축하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아랍 련합 공화국 인민들의 성과와 큐바 혁명의 승리는 파나마 인민들의 반미 애국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뒤'이어 파나마 정부는 운하 지역의 자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성명하였으며 1958년 5월 파나마 수도의 학생들과 시위자들은 《양키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운하 지역에 들어 가 그를 수복하려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이후에 있어서도 1959년 11월 반미 시위를 비롯하여 운하 지대의 반환을 요구하는 투쟁은 거세차게 전개되였다.

금번 파나마에서의 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이런 투쟁의 련속으로서 그 원인은 미제의 운하 지대에 대한 강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운하 문제에 대한 협상 이전에 외교 관계 재개를 부르짖으면서 갖은 교활한 술책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식민주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을 발판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작간》을 운운하는 것은 《후진》 국가들에 공공연한 압력을 가하며 인민들에 대한 학살 만행과 무장 탄압을 감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보려는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카스트로 앞잡이들이 류혈적인 파나마 폭동에 관련되여 있다》는 허구를 날조함으로써 이 사건을 저들의 반큐바 책동과 결부시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히틀러의 악명 높은 《반공》 외교에서 배워 온 이러한 수법이 시대가 달라진 오늘에 와서 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미제의 《공산주의자들의 작간》 운운은 오늘 파나마 정부와 인민들의 격분을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

파나마 대통령 치아리는 파나마 문제에는 국제 공산주의도, 큐바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언명하였으며, 1월 15일 파나마시의 청년 학생들은 미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것을 반대하여 파나마 종합 대학에서 운하 지대에 대한 자주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군중 집회를 열고 약 3,000 명의 학생들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거듭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 조약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하기 전에는 파나마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미제 침략자를 몰아 내기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날을 따라 더욱 거세게 타 오르고 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월가

파나마 사건이 폭발한 이후 미국 출판물들에서는 완전한 하나의 대소동이 일어 나고 있다.

소동의 주인들은 저마다 파나마 사태와 관련하여 진부한 론조들을 들고 나와 사건의 진상을 외곡하고 파나마에 무근거하게 악의에 찬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도 월가는 파나마 사태에 대한 자기의 불안과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월가의 침략자들이 파나마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눈이 뒤집히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들은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의 물'결이 그렇지 않아도 반미 투쟁의 도가니로 화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파급되여 더욱 거세찬 련쇄적 반응을 일으킬 것을 무서워 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지는 이렇게 썼다. 《파나마에서 일어 난 폭발은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과의 관계 력사에서 쓰라린 전환점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 파나마 사건은 다만 파나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큐바 혁명 이후 가장 대규모적이고 완강한 반미 투쟁의 하나이며 그의 발전은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에 또 하나의 심대한 파렬구를 형성하여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나마 사건은 미제의 《평화》 정책,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 대한 《선린》 정책의 진면모를 전 세계 인민들 앞에 여지 없이 폭로하였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더한층 새로운 앙양에로 나아가게 하였다.

파나마 사건이 일어 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월 8일 미국 대통령 존슨은 국회에 제출한 《년두 교서》에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와 선린 관계를 맺》어야 하며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좋은 벗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존슨의 이 말이 떨어지기도 바쁘게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우방에 대한 선린 관계》를 강요하였으며 파나마에 대한 령토적 야욕을 실현해 보려고 총탄을 퍼부었다. 이것은 미국 지배층들이 떠벌리는 《평화》와 《벗》이란 침략을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바로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누구에게 정의가 있는가를 명확히 판단하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은 《파나마를 지지하고 양키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높이 웨치면서 대중적 시위와 집회들을 진행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에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니카라과의 수도의 5,000 명 대학생들의 반미 시위를 비롯하여 멕시코, 코스

따리카,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에서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풍이 휩쓸고 있다. 심지어 일부 친미적인 괴뢰 정권까지도 인민들의 압력 밑에서 파나마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인민들이 미제의 마수를 꺾어 버리기 위한 파나마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일치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 미제에 대한 분노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 대륙에서 미제가 인민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파나마 사건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월가의 억만장자들을 몰아 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며 모든 지역에서 조만간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실로 파나마 인민들의 애국 투쟁은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일환으로서 그의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는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라틴 아메리카 각국 인민들은 그들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더 과감히 나서고 있으며 그들 간의 련대성은 일층 더 강화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음흉한 술책으로 침략 책동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저들의 침략 지반을 구원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이 력사의 흐름 앞에서 월가는 공포에 떨고 있다.

파나마 인민들은 외롭지 않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파나마 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류혈적 학살 만행과 무력 침략은 파나마와 라틴 아메리카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될 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도전 행위이다.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다.

미제는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교살하려고 날뛰고 있으며 강도적 살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각종 신형 무기와 전투 부대를 끌어 들이여 식민지 통치를 영구화하려 하고 있으며 아세아에서의 침략 전쟁의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그들은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 류혈적인 국내 전쟁을 다시 도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제는 인민 중국의 신성한 령토의 일부분인 대만을 강점하고 있으며 인도 반동 계층을 사촉하여 인민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국 소동을 벌려 놓고 있으며 큐바에 대한 새로운 무력 간섭을 로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파나마에서의 미제의 야수적인 만행과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침략자의 《리성》과 《선의》에 대하여 떠드는 사람들의 설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변할 수도 없다.

미제를 반대하는 파나마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한 부분이다.

파나마 인민들은 외롭지 않다.

오늘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평화를 사랑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는 파나마 인민들의 편에 확고히 서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파나마에서의 미제의 죄행을 규탄하고 있으며 파나마 인민들의 반미 애국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이 파나마 운하 지역에서 물러 가고 파나마 운하 지역은 무조건 파나마에 귀속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탄압과 외교적 술책으로도 정의를 귀중히 여기며 전 세계 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파나마 인민들의 전진 운동을 멈춰 세울 수 없다.

미제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강점 당한 운하 지대의 귀속은 주권 국가로서의 파나마의 응당한 요구이다. 그 누구도 이 나라 인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파나마 운하 지대에서 물러 가야 하며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인민의 수중에 돌아 와야 한다.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파나마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과 과학적 예견성

리 진 훈

1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가장 큰 관심사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앞을 정확히 내다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들이 앞날을 예견한다면 사태 발전에 맞게 행동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암중모색하게 되며 뜻하지 않은 실패를 가져 올 수 있다.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앞날의 날씨를 미리 예측한다면 그에 대처하여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고 생산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의의 재난을 당할 수 있다.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로부터 앞'일을 미리 내다 보기 위하여 모진 애를 써 왔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예언자》를 현인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하기 위하여 애써 왔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에 있어서의 사태 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자기들의 오랜 경험에 토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미신에 의해서 앞을 내다 보려고 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황당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는 것, 이것은 오직 과학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자연계에서 사물의 변화 발전을 정확히 예견하는 문제는 자연 과학에 의거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사회적 현상의 변화 발전을 예견하는 문제는 오직 사회 과학에 의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과학적 예견이란 바로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정확히 내다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대한 과학적 예견에 기초하여 사업을 포치함으로써 언제나 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고 있다.

실로 과학적 예견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기초에 확고히 놓여 있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의 정책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현재와 가까운 장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라의 먼 장래의 발전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였으며 대중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과 명백한 투쟁 목표를 제시하였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우리 당은 해방 직후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조선 혁명의 앞길을 명확히 내

다 보고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기하고 관철하였으며 또한 통일 독립된 조국의 만년대계를 예견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로선을 제시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해 왔다.

우리 당은 조국 해방 전쟁의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전쟁 승리를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 건설을 설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 축성에서 기초로 되는 기계 제작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중요한 력량을 경주하였다.

과학적 예견에 기초한 우리 당의 이 모든 방침들의 거대한 생활력, 그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명백히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를 공산주의에로 이끄는 정확한 길을 밝히고 그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미리 강구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정치, 경제,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의 제고, 공업 농업 간의 새로운 호상 관계의 설정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대책의 수립 등 최근 우리 당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얼마나 먼 앞날을 내다 보고 모든 사업을 포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먼 장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며 부단히 새로운 승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이것은 우리 인민이 언제나 혁명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는 결정적 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를 더욱 빛내이며 혁명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오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능력을 높이며 자기 사업의 발전 전망을 확고히 내다 보면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생활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일'군들이 사업의 발전 전망을 내다 보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모든 곳에서는 례외 없이 전변이 일어 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데서는 사업에서 계속 부단한 전진을 이룩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학적 예견성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커다란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2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맑스주의 발생 이전부터 과학적 예견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회 생활 분야에서 과학적 예견은 맑스주의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였다.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예견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예견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은 모두다 객관적 법칙에 대한 인식에 엄밀히 기초할 때만이 가능하다.

법칙에 대한 인식이 없이 미래에 대하여, 사건의 발전에 대하여 예견하려는 모든 시도는 허사로 돌아 갔다.

정 약용에서 최고봉에 도달한 우리 나라 실학파의 사회 정치 사상에는 농민적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이 풍부히 제기되였었다. 걸출한 실학 사상가들은

정당하게도 당시 사회의 부패, 타락, 인민 생활의 령락의 근원을 봉건 사회의 모순에서 찾았으며 량반 지주들의 토지를 제한하고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할 것을 비롯하여 반봉건적인 사회 경제적 개혁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 발전의 법칙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리상 사회의 건설을 위한 옳은 길을 리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에 의하여 그려진 화폭은 실현될 수 없었다.

토마스 모어를 시조로 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각히 그리고 명료하게 비판하였으며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대체되여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본질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 오는 객관적 조건들을 리해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사회의 창조자로 될 수 있는 력량도 보지 못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상가들의 리상은 리상 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들의 희망은 《사회적 력량에 의거하고 있지 않는 희망, 정치적, 계급적 력량의 장성, 발전에 의하여 튼튼하게 되지 않는 그러한 희망》(레닌 전집 제 18 권, 457 페지)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력사적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예견이 자연계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늦어진 것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자연계에서 모든 현상은 자체의 법칙에 따라 변화 발전하며 자연 법칙들은 인간의 의사와 인간의 활동과는 관계 없이도 작용한다. 사람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람들의 소원과는 관계 없이 낮은 밤으로 바뀌여지며 봄은 여름으로, 여름은 가을로 바뀌여진다. 만일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모른다면 자연 현상의 발전을 예견할 수 없으며 인간의 활동이 합목적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연 법칙들을 인식한다면 그 현상들의 장래 발전을 예견할 수 있으며 자연력을 사람들의 리익에 복종시킬 수 있다.

물론 사회 발전 법칙도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여 실현된다.

사회의 발전 법칙은 일체 반동 계급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파멸에로 이끄는 사회의 발전 법칙을 겁내 하며 그의 인식을 백방으로 저해한다.

례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법칙은 부르죠아지의 멸망의 법칙으로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 발전은 불가피하게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 생산력의 계획적 발전을 요구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합법칙적이란 것을 보여 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르죠아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법칙을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혐오하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할 수 없게 하고 투쟁에 궐기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악하는 것이다. 부르죠아지의 관심은 사회 발전 법칙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 력량의 공세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사회 발전 법칙들이 많은 자연 법칙보다 현저하게 늦게 발견되였으며 사회 현상에 대한 예견이 자연계에 대한 예견보다 훨씬 뒤늦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맑스주의의 발생—이것은 사람들에게 사회 발전 법칙을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맑스주의는 근로 대중에게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며 그를 지침으로 하여 일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는 발생 첫날부터 자본가 계급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사회 발전의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에 기초하여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혁명가들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오직 사회주의 하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예견은 전 사회적인 것으로 되며 그가 가지는 의의가 무한히 증대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여 있으며 생산력은 인식된 법칙에 상응하게 사회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발전된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던 경제 법칙들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며 장래를 예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한다.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사회주의 하에서는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의 리해 관계가 일치되며 인간 관계가 외곡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되고 명백하게 되였다.

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휘황한 전망을 주며 시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더 잘 예견하며 사람들의 활동을 그에 더 잘 적응시킬 것을 념원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특징은 미래 사회에 대한 과학적 예견에 대하여 리해 관계를 달리하는 계급과 계층이 없으며 그에 대하여 모두다 공통된 관심을 가진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주의 하에서는 과학적 예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은 과학적 예견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과학적 예견이 없이는 사회주의 사회가 전진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고도로 발전되고 조직화된 사회주의 사회를 훌륭히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문제도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때 경제 발전을 위한 옳은 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나라의 물적 인적 자원과 온갖 가능성들을 훌륭히 동원 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사회주의 사회는 보다 급속히 발전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의

복리가 더욱 증대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과학적 예견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한 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의 힘은 《그것이 어떠한 정세 밑에서든지 옳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주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내'적 관계를 리해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예견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사건이 현재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하여야 하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당에 준다는 거기에 있다.》(쓰딸린)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한 당은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한 기초 우에서 정책을 작성하며 그를 관철하는 투쟁에로 대중을 계획적으로 조직 동원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조국의 장래 발전 전망을 명확히 내다 보고 우리 인민 앞에 투쟁 목표와 그의 실현 방도를 내세우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오늘과 래일 뿐만 아니라 5 년 후, 7 년 후에 우리 조국이 어떻게 발전하며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미리 알고 확신성 있게 나가고 있다.

3

우리 당은 언제나 과학적 예견에 기초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다 먼 장래를 전망한 기초 우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당의 정책들을 훌륭히 관철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성과적으로 촉진시키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눈 앞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예견하고 사업을 포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매개 초소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이 자기 사업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앞을 예견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자기가 일하는 공장과 농장의 오늘의 사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1 년 후, 10 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준비를 갖추어 나가며 모든 사업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가 작성한 계획이 과학적인 것으로 될 수 있으며 또 계획 수행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면서 일한다면 사업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들에게는 그 순간의 성과로써는 부족하다. 우리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 순간 또는 그 날을 위한 계획으로써는 부족하다.》(레닌 전집 제 26 권, 46 페지)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더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업을 고도로 계획화할 것이 요구되는 오늘의 조건에서 우리 일'군들이 사업을 예견성 있게 조직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는 비할 바 없이 증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미래를 예견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일'군들이 과학적 예견의 능력을 소유하자면 무엇보다도 맑스-레닌주의 리론,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는 훌륭한 운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 법칙을 알아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의 길을 찾고 그를 따라 전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되면 될수록 마치 캄캄한 밤에도 험한 길에 헛들지 않고 평탄하고 가까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듯이 언제나 자기의 앞길을 명백히 바라 볼 수 있으며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다.

일'군들이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자면 또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을 내다 보자면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현 실정을 옳게 료해하는 유일한 무기로 되는 것은 군중 로선의 관철이다.

일'군들이 부단히 군중 속에 침투하여 대중과 같이 사업할 때 비로소 이미 포치된 사업이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는가,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가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료해할 수 있으며 군중의 지혜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대책을 옳게 세울 수 있다.

예견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은 바로 실천이며 실천의 무대는 곧 군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생산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이 군중 속에, 생산 현장에 침투하고 접근하는 것은 그들이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의 과학적 예견의 능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날 것이며 7 개년 계획은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당이 펼쳐 준 휘황한 설계도가 놓여 있다.

우리 조국의 면모는 앞으로도 계속 천리마의 속도로 전변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과 더불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당의 구상을 보다 훌륭히 구현하며 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에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964 년도 기본 건설 부문의 중심 과업과 그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리 세 식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나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될 1964 년도의 계획 실행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기본 건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수행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채취 공업과 농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경공업과 재가공 공업에 보충적 투자를 실시하며 주택 및 공공 문화 후생 시설 건설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평양시 건설과 김 일성 종합 대학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며 민주 수도를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릴 것이다.》 (결정서에서)라고 기본 건설 부문의 금년도 중심 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원 회의는 금년도에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을 전년에 비하여 126%로, 건설 조립액을 151%로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기본 건설 부문에서 《비날론 속도》와 《평양 속도》를 창조한 건설자들의 영웅적 기개를 또다시 세계에 떨칠 것을 호소하였다.

금년도 기본 건설 부문의 이상과 같은 사업 방향은 우리 당이 금년에 달성하려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균형과 속도를 보장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정확한 방침으로 되며 주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한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우선 금년도 기본 건설 부문의 방침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금년도 경제 발전 방향의 한 중요 측면—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 경제의 토대에 립각하여 중공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는 데 훌륭히 복무하게 된다.

당은 금년에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80%를 생산적 건설에 돌리게 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채취 공업에 힘을 집중하게 하였다.

또한 금년에 인민 경제의 첫 공정이며 다른 부문에 선행되여야 할 동력 기지 건설이 계속 강력히 촉진된다. 즉 평양 화력 발전소, 강계 및 운봉 수력 발전소의 건설이 촉진되고 새로운 발전 능력들이 조업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금년에는 철도의 전기화가 전 인민적 운동으로 급속히 추진되며 평양—신의주, 평양—신성천 간의 철도 전기화가 완성된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중공업을 일층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기본 건설의 금년도 방침은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금년도

경제 발전 방향의 주요 측면—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된다.

금년에 농촌 경리에 대한 투자는 전년에 비하여 135%로 증가된다.

우선 금년도에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대규모 관개 건설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대동강, 압록강, 청천강 등을 비롯한 대 소 하천들의 정리와 제방 공사 등 대자연 개조 사업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며 협동 농장들에 국가의 투자로 탈곡장, 종자 창고를 비롯한 각종 창고, 화전장 등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게 된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의 원료 기지 조성을 위한 건설에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을 전국의 지원 하에 강력히 추진시키며 8.15까지는 스프 한 계통을 조업 개시하게 된다.

또한 중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그를 더 잘 복무케 하기 위하여 이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개선하고 보강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금년도에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이 계속 강력히 촉진되며 공공 문화 후생 시설 건설이 광범히 진행된다. 금년에 평양시에서는 1만 3, 200 여 세대의 문화 주택과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건설인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하여 극장, 영화관 등 총 건평 16만 평방메터의 공공 문화 후생 시설 건설이 진행되며 중앙 난방과 공원, 유원지 건설이 큰 규모로 추진된다.

이 모든 것은 금년도 건설 방침이 금년에 당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경제 과업—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과업 실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이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방향에 철저히 립각하여 세워진 과학적인 계획이다.

기본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고조를 불러 일으키게 될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은 실로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여 있다.

그것은 첫째로, 자립 경제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이 더욱 정비 보강되고 기본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공고히 된 사실이다.

7 개년 계획의 첫 3 년간에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금속, 기계, 전재 등 기간적 중공업의 골간에 살이 붙고 잘 정비 보강된 결과 건설에 필요한 각종의 생산 설비, 각종의 재료들과 건설 기계들의 생산이 질 량적으로 급속히 증대되였다.

특히 기계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됨으로써 이제는 필요한 건설을 언제든지 마음 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만일 우리가 정전 직후와 같이 기계 설비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금년에 우리 당이 내세운 것과 같은 대규모의 건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기계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건설 부문의 기술 장비가 급속히 장성 강화되였다. 특히 75 톤급 대형 탑식 기중기와 4 립방메터짜리 《장백호》 엑쓰까와또르의 생산은 기본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금속 및 전재 공업 부문이 정비 보강된 결과 그 품종이 확대되였고 질이 제고되였으며 철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 재료를 보장하는 사업에서도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다.

둘째로, 그것은 기본 건설 부문에 새로운 관리 지도 체계가 확립되여 있는

사실이다.

1963년 1월 7일 당과 내각의 공동 결정에 의하여 개편된 새로운 건설 관리 지도 체계는 우리 나라 기본 건설 부문에서 처음으로 전국을 망라하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관리 지도 체계이다.

수립된 새로운 관리 체계는 건설 부문의 잠재력을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

우선 그것은 전국의 기본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케 함으로써 건설에서 선후차를 가리며 중심 고리에 기동적으로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새 체계는 종래와는 달리 건설주 기관들과 설계 기관, 시공 기관들을 서로 분리시켜 그들 간에 계약 체결에 의하여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건설주가 모든 것을 걸어 안고 건설하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무규률적인 현상을 근절케 하였고 건설을 점차 정상화할 수 있게 하였다.

새 체계 하에서는 전국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게 된 결과에 건설 력량을 정규화하고 건설 간부들과 기술 기능자들을 계통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한다.

새 체계 하에서의 1 년간의 생활은 그것이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건설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요컨대 기본 건설 부문에서 이미 축성하여 놓은 제반 물질 기술적 토대와 새로운 건설 관리 지도 체계에 튼튼히 립각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일으킨다면 당이 요구하는 대로 금년에 기본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의 실현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나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금년도 건설 과업의 실현은 우선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려는 우리 인민의 오랜 념원을 최근 1~2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준다.

또한 금년도 건설 과업의 실현은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의 공고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축소시키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을 강력히 촉진하게 될 것이다.

금년도 건설 과업에서 평양시 건설은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 혁명의 발원지이고 사회주의 조국의 민주 수도이며 미제의 기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되는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고,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 것은 우리 인민의 거대한 정치적 승리로 된다.

* *

그러면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 과업은 무엇인가.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수립된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다.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한 일일 뿐만 아니라 처음 해 보는 일인 것 만큼 새 체계의 일부 환절들은 아직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일부 지도 일'군들은 새 체계가 가지는 심오한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업 질서와 방법을 새 체계에 상응하게 전환시키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 건설을 혁신함에 있어서 약한 고리를 조성하고 사업 전반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새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공동 결정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기본 건설 부문의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급 건설 기관들은 물론 각 도 건설 위원회들과 건설 기업소 간부 대렬을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되고 발전성 있는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그들에 대한 정책 교양과 실무 교양을 집중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특히 지난 시기 수차에 걸친 건설 기구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 부문에 오래 고착된 간부 비중이 적은 조건에서 간부 대렬을 꾸리고 그들을 계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새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기본 건설 부문 내 모든 단위들에서 사업 체계, 사업 방법을 철저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과 각 부서 단위들에서 직능과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사업 체계를 세워야 한다.

특히 새로운 관리 체계 하에서는 건설이 건설주, 설계 기관, 시공 기관들 호상간에 주문 제도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였고 시공 기관 내에서도 건설 시공 기관, 기업소와 기계화 및 설비 조립 기관, 기업소들이 계약 체결에 의하여 협동 작업을 수행하게 된 조건에서 련계된 부문들 간의 호상 관계에 대한 명확한 책임 한계와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 년간의 경험은 이 호상 관계의 합리적이며 정확한 해결이 없이는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웃 단위가 아래 단위를 계통적으로 도와 주는 체계를 세우고 지도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 건설 위원회는 도 건설 위원회를 도와 주고 도 건설 위원회는 기업소들을 체계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급 건설 기관들이 도 건설 위원회를 제껴 놓고 산만 무질서하게 건설 현장을 지도함으로써 지휘 체계를 혼돈시키고 현장 일'군들에게 혼란을 주는 현상을 철저히 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내려 가 도와 줄 대신에 무질서하게 사람들을 불러 올리거나 잡다한 통계와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지도를 대치하려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설에서 우리 당의 집중화, 정상화의 원칙을 정확하게 관철시키는 것이다.

건설에서 집중화, 정상화는 건설의 조업 개시 기일을 단축하고 그의 질을 높이게 함으로써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본으로 된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푼전을 아껴 가면서 건설하고 있는 조건에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며 생산 능력의 조업 개시를 촉진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건설에서 집중화와 정상화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건설에서 력량을 분산시키는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또 중요 대상에 힘을 집중한다고 하면서 이에 건설의 정상화를 옳게 결합시키지 못하고 무질서한 깜빠니야 공사를 진행하는 경향들이 발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에서 집중화 원칙은 계획으로부터 시공 조직에 이르기까지 건설을 정상화하는 원칙과 반드시 결부되여야만 그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해 일부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건설 조직을 이와 같이 하지 못한 데

로부터 로력과 설비 리용에서 랑비를 낳게 하였고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건설에서 집중화, 정상화의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최근 김 일성 동지가 또다시 강조한 바와 같이 기본 건설의 계획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자기 력량과 객관적 보장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중요 대상에 로력과 자재의 집중을 예견하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시공 계획과 자재 및 설비 보장 계획을 잘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건설 위원회는 전국의 기본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 작성으로부터 그 집행에 이르는 건설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에서 집중화, 정상화의 원칙을 잘 관철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서 개별 건설 대상의 시공 조직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시공 순위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서는 도시 및 산업 건설에서의 지하 매설물 공사 또는 수력 발전소나 관개 하천 건설에서의 계절적 제한성을 띠는 공사 등 다른 모든 공정에 선행시켜야 할 공정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에 건설 력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금년도 기본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기본 건설에 대한 설계와 자재, 설비 등의 보장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에는 《설계 기관들에서는 설계 력량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2 배 이상으로 확장하고 설계에 대한 증대된 수요를 질량적으로 원만히 보장할 것이며 각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건설 설비들과 건설 자재 생산을 계획 대로 어김 없이 보장함으로써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전원 회의가 이 문제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한 것은 우리의 건설자 대렬이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급속히 장성한 결과 이제는 건설에서의 성과가 설계와 설비, 자재 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크게 좌우되게 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기본 건설에 대한 보장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설의 첫 공정으로 되는 설계를 시공에 선행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두 측면에서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건설주 기관들에서는 설계의 기초 문건인 기술 과제를 제때에 정확히 작성 보장하여야 한다. 즉 매개 건설주 기관들에서는 기술 경제적으로 정확히 타산된 기술 과제를 작성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의 작성이 지연되거나 또는 과학성의 결여와 경제적 타산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도중에 기술 과제를 변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설계 기관들에서는 설계의 표준화에 신중한 주의를 돌리여 종류별, 규격별로 다양한 표준 설계를 작성함은 물론 표준 설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대상 설계들까지도 광범히 반복 적용하기 위한 조직 사업과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재 설계 력량이 제한되여 있는 조건에서 설계에 대한 질적 및 량적 요구를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와 함께 설계 사업에서 조판식, 부호식 설계 방법 등 새롭고 능률적인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설계원 1 인당 생산성을 적극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에 대한 급격히 장성하는 방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은 설계 일'군 대렬을 2 배로 증가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무 기관 또는 비전공 부문에 있는 설계 일'군들을 소환하여 설계 기업소들을 튼튼히 꾸려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대책으로 설계에 대한 증가되는 량적 수요를 보장하는 한편 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설계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의 질 제고의 기본 내용은 건축물의 강성과 수명을 보장하며 생산적 요구와 생활 상 편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면서 철재와 목재를 비롯한 자재, 자금, 로력을 극력 절약하여 더 많이 건설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설계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우리는 구조 계산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공명주의에 사로잡혀 구조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현상이라든가 반면에 소극성에 빠져 지나친 예비를 조성하려는 편향들을 다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에 대한 보장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생산 설비들과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본 건설 총 투자의 80%가 생산적 건설인 조건에서 건설 대상의 생산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실지 수천 수만 종의 복잡한 설비와 부분품들의 생산을 계획하고 생산에 맞물리며 그를 제때에 인수하여 건설장에 공급하는 사업은 어느 한 기관이나 한 집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건설주 기관과 생산자, 시공자 간의 긴밀한 협동 작업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다.

우선 금년도 건설에 필요한 모든 대상 설비들을 루락시킴이 없이 종합적으로 생산에 맞물리는 사업을 세밀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설비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를 계획된 기일 내에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는 동시에 협동 생산품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가공하여 넘겨 주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요 설비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의 설치 및 시운전까지도 책임지는 립장에서 시공 기관들을 도와 주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현재 설비의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기관들에는 설비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되는 조건에서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방조 없이는 방대한 설비 조립 공사를 질 량적으로 원만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 기관들에서는 설비 담당 부서들을 시급히 꾸리고 설비의 생산 행정을 일상적으로 장악 추진시키며 인수 및 보관 관리와 공급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재, 목재,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 재료와 각종 일반 건재 생산을 강화하고 그의 품종을 확대하며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특히 금년도에 수도 평양 건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한 기념비적 대건설들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보다 다양하고 질이 높은 건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건재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체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건재품의 종류를 배 혹은 수 배로 확대하며 그의 질을 국제적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건재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금년 중에 온갖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새 품종의 시작품 생산을 조직하고 그의 기술 공정을 완성할 것이며 그 토대 우에서 래년부터는 국가적인 큰 투자에 의하여 대규모적인 건재 생산에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단 금년도 기본 건설을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7 개년 계획의 나머지 기간에 예견되는 방대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만일 우리가 단 시일 내에 건재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지 못 한다면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고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금년도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

하며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이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고 건설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건설의 공업화는 건설적 생산에 흐름식 공정과 기계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건설을 더 빨리, 더 경제적으로 또 더 좋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 방도이다.

우리 당은 이미 전후 첫 시기에 건설의 공업화 방향을 제시하였고 1957년 10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면적인 조립식 건설에로 이행하였다.

우리가 창조하였고 세계를 경탄케 한 《평양 속도》는 바로 이 방침에 의하여 이룩된 열매이다.

건설 공업화의 기본 내용은 설계의 표준화, 부재 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이다.

우리는 이미 도시 건설의 공업화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건설의 전 분야에서 공업화를 일층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설계의 표준화와 부재의 규격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 건설에서 표준 설계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부재를 규격화하고 그 대용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부재 생산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생산 면적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현존 부재 공장들의 기계 설비들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을 강화하고 그의 생산 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 동시에 가장 능률적이고 큰 투자 없이도 쉽게 조직할 수 있는 수직식 부재 생산 방법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의 공업화에서 시공의 기계화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최근 2~3년 내에 건설 부문에서 운반, 상하차, 굴착을 비롯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을 완전히 기계화하고 손로동과 등'짐 로동을 없앨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 기계들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건설 관리 체계의 개편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조성되였으나 아직도 조직 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개선을 보지 못 하고 있다.

건설 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중요한 것은 모든 기계들에 대한 관리 운영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관개 하천 건설을 비롯하여 토공사들에서 불도젤, 엑쓰까와또르, 자동차 등의 력량을 작업 대상과 지형 조건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종별 능력의 과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또 수송 조직에서도 집중화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건설 작업의 기계화에서는 대형 건설 기계에 의한 현대적 기계화와 벨트 콤베야, 토운차 등을 비롯한 각종 중소 기계화를 배합하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 공업 부문에서 계속 새로운 대형 건설 기계를 생산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 기본 건설의 질적 내용의 변화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이상과 같은 건설의 공업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 그를 위한 기술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에 필요한 물질적, 기술적 보장 대책을 계획적으로 안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건설 계획과 동시에 기술 발전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금년도 건설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설 기업소들에서 현물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지난 기간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자체의 특수성 즉 다른 공업 부문과는 달리 로동의 결과가 하나의 완제품으로 출현하기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의 반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작업 공정이 복잡하다는 데서 기업소 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가치 측면에서만 분석하여 왔다. 이것은 기업 관리 운영에서 이러저러한 부정적 현상들을 가져 오게 하였다. 특히 로동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그에 따르는 정확한 분배를 보장하지 못 함으로써 건설자들의 창발적 열성을 일층 높이지 못 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은 기본 건설 부문에서 《엄격한 로동 규률을 확립하고 수행한 작업의 량과 질에 의하여 식량과 임금을 받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확립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물 평가제를 도입 일반화할 것》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현물 평가제란 문'자 그대로 매개 기업소들의 기업 활동을 현물 즉 건설물의 조업 개시 기일 보장과 원가 계획 수행 여하에 따라 평가하는 새로운 경제적 범주이다.

그것은 이미 기업 관리 운영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되였다.

건설에서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건설물의 조업 개시 기일 단축과 로동 생산능률 제고에 커다란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액 상 계획에만 매달려 공사를 벌려 놓고 시공의 선후차까지 위반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주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기업소 전반의 활동을 현물로 정확하게 평가하게 함으로써 개별적 로동에 대해서도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정확한 평가와 정확한 분배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현물 평가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업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도입하고 기업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즉 당이 제시한 계획화의 제 원칙에 립각하여 실현성 있는 과학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건설 시공에 설계 도면과 기계 설비들을 선행시키고 기술 준비를 충분히 갖추게 하며 기술적 지도와 자재 보장 사업을 정확히 맞물리게 함으로써 건설 계획을 시공 순위 대로 일별, 월별,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로력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로력 기준을 정확히 작성 적용하며 매개 일'군들의 기능과 기질에 따라 로력 배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기본 건설 부문 내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현물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금년도 건설에서 반드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 ❊

지금 기본 건설 부문 앞에는, 한편으로는 개편된 새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년도 건설 과제를 수행해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 건설 부문 앞에 나선 과업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이 부문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할 것이 특별히 요구된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기본 건설 부문 내의 대렬을 꾸리며 건설 정책에 대한 키잡이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금년도에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정확한 실행을 기본 건설 측면에서 담보하는 동시에 앞으로 보다 방대한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진하는 우리의 영화 예술

박 영 희
계 훈 혁

오늘 우리 영화 예술은 다른 모든 문학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당성의 기치 높이 조국의 혁명 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 영화 예술의 급속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영화 예술 일'군들이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천리마 시대가 제기하는 일련의 본질적 문제들—현대성의 요구를 철저하게 해결한 데서 이룩된 것이다.

최근 시기 창작된 우리 영화들에는 천리마 시대 생활의 본질과 인간들의 정신 세계가 매우 폭 넓고 깊이 있게 천명되여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발휘하는 근로자들의 영웅적 기백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생동하게 반영되여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영화 예술은 참으로 수백만 근로 대중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킬 수 있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되였으며 인민을 교양하고 적들에게 타격을 주는 계급 투쟁의 예리한 무기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술 영화 《정방공》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3 부작 영화 《대지의 아들》 1, 2 부, 《붉은 꽃》, 《백일홍》, 《땅을 지키는 사람들》, 《1,211 고지 방위자들》, 《조국으로 돌아 오다》, 《다시 찾은 이름》, 《뜨거운 심정》, 《새 세대》, 《축배》 등 작품들이 잘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천리마 현실이 제기하는 가장 긴절한 문제들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이에 옳은 예술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영화 예술의 전투성을 더욱 제고시켰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그 주제의 적극성과 높은 사상성, 형상의 풍만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영화 예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 *

그러면 최근 우리 영화 예술 분야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천리마 기수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시대의 본질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 성격적 특질-정신적 미를 진실하게 밝혀 냄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이에 훌륭한 예술적인 해답을 주었다는 데 있다.

천리마 기수의 영웅-투사적인 성격 창조, 여기에 우리 영화 예술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이것은 우리 영화 예술을 높은 전투성과 생생한 현대성으로 빛나게 하였다.

우리 영화에 형상화된 주인공들—천리마 기수들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평범하고 소박한 그들의 일상 생활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영웅적인 특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대의 높이에서 전형화한 것은 영화 예술이 달성한 새로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정방공》의 옥림이나 《축배》의 응두, 《백일홍》의 우혁이나 《뜨거운 심정》의 홍기, 《새 세대》의 명숙 등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은 결코 남다른 재능을 가진 걸출한 인간들이거나 선발된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다 같이 어제'날 착취 받고 학대 받던 평범한 근로자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다. 평범하고 소박한 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되게 한 것은 시종일관한 당의 령도이며, 다시는 옛 처지로 돌아 가지 않으려는 높은 계급적 각성이며 시대에 대한 높은 책임성이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들의 영웅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리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웅-투사적인 성격은 그 어떤 추상적인 용감성이라든가 기상 천외한 전설적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의 바탕에 깊이 깔려 있는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과 높은 공산주의적 풍모 등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신심 그대로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영화 예술인들은 보람찬 우리 제도 하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근로자들이 매일 매 시각 시대의 영웅으로 장성하는 천리마적 현실의 본질적 특성을 옳게 인식함으로써 새형의 인간, 천리마 기수들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보여 주는 작품들을 수다히 창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창작된 《정방공》과 《축배》는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이 작품들은 령도 계급으로서의 로동 계급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가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때 로동 계급의 영웅-투사적인 성격적 특질을 각이한 주제와 각이한 예술적 형식을 통하여, 그들의 암담했던 과거를 랑만에 넘치는 오늘의 현실 생활과의 대조를 통하여 심오하게 천명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형상 창조에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훈전 15 원에 타면 공장의 고용 로동자로 팔리여 간 옥림이가 해방 후 당의 품'속에서 고속도 다추 운동의 선구자로, 지배인으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장성하는 과정이나 반생을 왜놈 감독의 채찍 밑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응두가 해방 후 나라의 주인으로서 조선 인민의 기개와 본때를 보여 주는 투쟁 과정은 그대로 영웅 서사시적 이다.

이 영화들은 그 어떤 기발한 사건이나 복잡한 생산 공정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로동 생활의 흐름 속에서 로동 계급의 참다운 인간 성격을 해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화 창조자들은 옥림이나 응두의 성격 형상에서 그들의 생애를 단순히 자서전적으로 라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의의 있고 본질적인 측면들을 추출하여 일반화함으로써 독자-관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시대의 전형으로 부각하였다.

우리 영화에 형상화된 주인공들은 그 직업과 년령, 개성에 있어서 서로 다르나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달려 나가려는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진취적 정신과 혁명적 락관주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에서 서로 공통한 성격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사상 성격적 특질을 풍만하게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영화의 주인공들은 현 시기 공산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다정한 《길'동무》로 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고무자로 되고 있는 것이다.

천리마 기수의 성격 창조에서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성격 형상에서 단조성을 극복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폭 넓고 심도 있게 보여 준 점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일부 작품들이 잡다한 생산 공정 속에 인간을 파묻어 둠으로써 그의 내면 세계의 움직임-성격의 운동을 보여 주지 못하는 데 대하여 많이 론의해 왔다.

최근 창작된 영화들은 이러한 편향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심도 있게 보여 주

였다.

이것은 례컨대 《백일홍》의 우혁이나 금녀의 성격 형상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영화들은 주인공들의 내면 세계를 심도 있게 추구하며 그것을 조형적인 화폭으로 개방함으로써 영화의 서정성, 혁명적 랑만성을 풍부하게 구현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영화 예술 작품에서 혁명적 랑만성을 옳게 구현하는 문제는 현대성 구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우리 현실 자체의 랑만적 성격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다.

오늘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좋은 공산주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 현실이야말로 그대로 랑만적이다.

《새 세대》의 주인공 명숙은 기술 학교를 갓 나온 나어린 처녀이다. 그러나 이 나어린 처녀는 하늘 아래 첫 동리로 불리우는 산간 마을인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남과 같이 고기'국을 먹게 하려는 푸른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담수 양어에 착수한다. 그의 꿈은 우리의 현실에서 드디여 실현된다.

우리의 영화 창조자들은 이러한 현실 자체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 세계의 밑바탕에 흐르는 혁명적 랑만을 진실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대 주인공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형상화하는 문제는 근로자들과 특히 새 세대들을 혁명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미래를 락관하는 혁명가의 품성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현실 주제 작품 창작에서 거둔 성과의 또 하나는 극적 갈등 문제를 옳바르게 해결함으로써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정당하게 천명했다는 그것이다.

낡은 것과 새것과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는 갈등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 특성도 부단히 변화 발전한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옳바른 리해가 없이는 천리마 현실의 본질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천리마 기수의 성격도 옳게 전형화할 수 없다.

사회 생활에서 본질적인 갈등을 포착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 능력—이것은 창작가의 미학적 리상의 높이와 관련되며 정치적 식견, 현실 체험의 깊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백일홍》의 창조자들은 락석 감시원인 우혁과 금녀 부부 간의 갈등을 통하여 심산 유곡에서 일편 단심 《혁명의 괴임'돌》이 되고저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해 투쟁하는 우혁의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성실성, 시대에 대한 높은 자각을 유감 없이 보여 주었다.

우혁은, 번화한 도시의 건설장 같은 데서만 자기의 리상을 꽃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녀와 단 한 번도 직접 충돌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금녀를 어루만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진 금녀의 《리상》을 극복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 몇 초나마 렬차를 정지시킨 사건을 두고 심각하게 자책하는 우혁과 자기를 깊이 뉘우치는 금녀와의 극적 관계 속에서 잘 밝혀지고 있다.

《뜨거운 심정》에서는 긍정이 지배적이고 부정이 말차적이며 긍정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부정이 교양 개조되는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되고 있는 시대의 진리가 명백하게 천명되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시기 창작된 일련의 현실 주제 작품의 갈등 해결에서 보여 주는 특징적인 것은 례외 없이 갈등 선상에 긍정이 주도적 위치에 서 있으며 극성이 긍정의 적극적 역할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 해결에서 새로운 시사를 주는 다른 하나는 긍정이 지배적이고 긍정의 적극적 역할에 의하여 극성이 발전되고 해결된다 하여, 특히는 외'적 부딪침이 《첨예》하지 않다 하여 갈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부정을 교양 개조하려는 긍정의 내부적인 극적

체험의 심오성에 의해서 극성은 예리하고 심각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의 심각성은 결코 그 어떤 충돌의 도수와 량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이건 내'적인 것이건 간에 긍정적 주인공의 리상의 높이와 그와 맞서고 충돌하는 부정의 사상적 락후는 결국 새것과 낡은 것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항상 예리하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말차적이라는 현실적 특성을 직선적으로 리해하여 부정을 하잘나위 없는 것으로 차요시하거나 반대로 부정을 확대 과장하는 경향은 다 맑스-레닌주의 미학 리론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와 같이 영화 예술의 현대성 구현에서 달성한 성과는 우선 천리마 시대 생활의 본질과 천리마 기수들의 영웅-투사적인 성격적 특질을 심오하게 천명하고 있는 데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영화 예술의 현대성 구현에서 이룩한 성과는 현실적 주제를 많이 취급했다는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현대성은 현실적 소재 그 자체이기보다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 정신의 높이에서 그것을 심오하게 감득하며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묘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현실 생활을 소재로 했거나 력사적 과거를 소재로 했거나 간에 작가가 시대 앞에 제기하려는 사상을 력사주의적 원칙과 밀접히 통일시키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 위업 수행을 고무 추동하며 그들의 계급 교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대성의 구현은 당해 시기 혁명이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의 본질을 천명할 수 있는 참신한 문제성의 제기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미 우에서 언급한 일련의 영화 작품들은 현대성 구현에서 한 걸음 크게 앞으로 나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범한 로동 생활 속에서 시대의 본질을 천명할 수 있는 문제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반화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창작가의 재능이다.

《뜨거운 심정》의 창조자들은 미제에 의한 전쟁의 참화로 하여 부모를 잃고 단 하나 밖에 없는 누이의 생사마저 알 길 없어 애타하는 명철이의 그늘진 생활에서 문제성을 포착하고 누이를 찾아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시대를 구가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붉은 꽃》도 이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다.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 사업이라는 높은 당적 자각으로 후대들을 교양하는 한 평범한 녀교원의 사업과 생활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높은 시대 정신의 조명으로 비쳐 주었다. 그리하여 관중들을 우리 시대, 우리 제도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옹호, 낡은 제도에 대한 불타는 저주와 증오의 정신으로 교양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현대성 구현에서의 영화 예술의 성과는 문제성의 참신성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양성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조국으로 돌아 오다》의 창조자들은 계급적으로 자각하지는 못 했으나 민족적 량심만은 저버리지 않은 한 건축 기사 방 원일의 극적 운명 속에서 심오한 문제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현실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에서 훌륭하게 해결하였다.

방 원일이 남조선에서 일본으로 전전하면서 쓰라린 체험과 모색 끝에 진정한 조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며 진정한 삶의 길은 조국의 품에 안기는 데 있다는 진리를 자각하고 조국으로 돌아 오는 것은 그의 운명과 성격 발전의 론리로 보아 응당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의 밑바탕에는 조국 통일에 대한 지향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계급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것은 영화 예술을 포함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기본 사명이다.

광범한 시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영화 《대지의 아들》은 땅을 위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은 오직 당의 령도 하에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력사적 진리를 옳게 천명하였다.

동시에 땅을 위한 심각한 계급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농민 대중이 조직된 력량으로 단결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계급 정책과 군중 로선의 정당성을 선명한 화폭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우리 나라에서 첫 3부작 영화로서 대형식의 작품 창조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현 시기 사회 력사적 일반화의 폭 넓은 묘사 속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 장성의 력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크다.

계급 교양에 바쳐진 일련의 작품들에 흐르는 공통적인 사상은 사람들에게 생활이 유족하고 행복할수록 처참했던 과거를 잊지 말 것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몇 푼의 빚 때문에 이름마저 빼앗기고 물건처럼 팔리여 다니던 《다시 찾은 이름》의 순비의 기구한 운명이나 《붉은 꽃》의 쌍가마의 고난에 찬 반생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장을 낡은 제도와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의 격정으로 불타게 하고 있는가.

때문에 이 영화들은 아직도 순비와 쌍가마와 같은 처지에서 헤매는 남조선 동포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는 사상을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영화 예술은 특히 과거와 현재, 미래를 회상과 련상, 환상의 자유 분방한 형상 수법으로 직접 시각화하여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대비 교양에서 가장 위력 있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이 예술적 특성 자체가 대비 교양에서의 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대비의 수법을 어떻게 구사하는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예술의 계급 교양에 복무하는 기능을 높임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대비의 중심을 옳게 잡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비는 력사적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경우에나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를 대조하는 경우나를 막론하고 단순한 평면적인 대조가 되여서는 안 되며 그것이 어디까지나 작품의 주제와 주인공의 성격을 천명하는 데 유기적으로 련관되면서 우리 현실과 우리 제도를 열렬히 옹호 긍정하는 데 복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붉은 꽃》을 비롯한 성공한 일련의 작품들은 바로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현대성 구현에서 이룩한 우리 영화 예술의 성과는 그의 높은 형상성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제아무리 건전한 사상과 긴요한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라도 그것이 형상의 옷을 입지 못했을 때에는 딱딱하고 메마른 론리나 설교 밖에 나올 것이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예술성으로 더욱 강하여진 고상한 사상성—이것은 어떠한 예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든지 유일하고 정당한 범주이다.》(선집 제 4 권, 39 페지 1954년도 판)라고 교시하였다.

우리 영화 예술이 인민들의 열렬한 정서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의 고상한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에 있다.

지난 기간 영화 예술 일'군들은 당 정책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현실 깊이 침투하여 근로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새 현실—새 내용의 요구에 따르는 새 형식을 부단히 탐구할 수 있었다. 우리 영화 예술의 형상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만 극작술 상 혁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과 함께 그 표현의 기교가 결정적으로 높아진 데도 있다. 그것은 일련의 성과작들에서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는 독창적인 영화 언어를 능란하게 구사하고 있는 데서,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천명하고 있는 데서 잘 표현되고 있다.

무한히 아름다운 우리 시대 인간들의 내면 세계에로의 깊은 육박—이는 우리 영화의 전투적인 서정성을 더한층 높이게 하였으며 대중의 감정에 깊이 스며드는 시'적인 화면들을 창조케 하였다.

그 밖에도 우리 영화 예술의 형상성이 높아진 측면은 편집 기법과 다양한 회상 수법의 능란한 구사,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는 템포-리듬의 조성, 촬영과 연기 형상의 눈부신 발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의 영화 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성, 계급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제기하는 혁명 위업 수행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영화 예술은 혁명하는 시대의 건전하고 전투적인 영화 예술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영화 예술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문학 예술의 무사상, 무계급성을 추구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물론 우리는 이상과 같은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고 있는 현실과 인민들의 미학적 수요의 장성은 영화 예술의 사상 예술성을 가일층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그 주제적 면에서 과거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 공산주의자들과 그의 영웅적 위업을 계승한 로동 계급의 전형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해야 하며 특히 조국 통일에 대한 주제의 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영화 예술은 인민 대중의 계급 의식을 더욱 제고하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힘차게 고무 추동하여야 한다.

주제를 다양하게 개척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주제를 어떤 형식과 수법으로 구현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긴절한 주제가 진실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높은 형상 속에서 천명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 예술의 형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사실 상 일부 영화 작품들은 무한히 풍부한 영화 언어들이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지 못 하며 극작술에서의 《무난한 처리》와 류형성, 도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딱딱하고 메마른 표현들을 더는 용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영화 예술 일'군들은 매작품마다에서 새것의 탄생을 촉구하는 립장에서 대담하게 독창적인 영화적 구성과 표현 기법을 탐구해 나갈 때만이 인민들의 사상 미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창작 실천 상 더욱 원숙한 해결을 요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작가 자신들의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기량을 높이여야 한다.

우리는 계속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당성, 계급성의 기치를 고수하면서 천리마의 새로운 대고조로 들끓는 현실의 요구에 부합되게 영화 예술의 창작에서도 대고조를 이룩하여야 한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특성

현 호 범

오늘 경제적 지위의 개선과 민족적 권리의 회복을 지향하는 민족 자본가들을 한편으로 하고 식민지 억압과 략탈을 로골화하고 있는 미제와 그의 괴뢰 반동 세력을 다른 편으로 하는 량자간의 모순의 심각화는 남조선 사회 경제 발전의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표하는 미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 자본 및 봉건 세력에 의한 정치 경제적 지배는 남조선 민족 경제와 민족 시장의 파괴, 민족 자본의 쇠퇴 몰락 과정을 급속히 촉진시켰다.

남조선의 식민지 경제의 반영인 자금난, 원료-동력난, 세금 과중 및 판로난 등 모든 악결과는 민족 자본의 경제적 지위를 심히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자각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사회 경제 발전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민족 자본가들도 공동적인 주되는 적인 미제와 그의 지주로 되고 있는 괴뢰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로동 계급과 공통된 리해 관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제 4 차 당 대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죠아지, 청년, 학생, 지식인 그리고 민족 부르죠아지까지도 조국의 분렬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공통한 민족적 리해 관계에 의하여 련결되여 있다.》

그러므로 현 시기 남조선 민족 자본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 문제는 남조선의 혁명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남조선 민족 자본가들의 날로 악화되는 경제적 지위와 처지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사회 경제 관계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 자본은 주로 중소 규모의 자본으로서 민족적 독립과 민족 경제의 발전 및 자주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지향하는 토착 자본을 의미하는바 과거 일제 통치 시기 그의 발전이 억제되여 극히 미약하였던 남조선 민족 자본은 해방 후 미제의 민족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파괴 정책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산되였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부단한 파산은 《원조》를 기본 공간으로 하는 미제의 식민지 략탈과 군사화 정책 그리고 남조선 력대 괴뢰 《정권》의 매국 배족 행위의 후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외 원조》는 《피원조국》에 대한 미제의 정치, 군사적 지배와 함께 경제적 략탈을 실현하는 중요 도구로 되고 있는바 그것은 남조선에서 가장 로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제에 의하여 설치된 《주한 미국 경제 협조처》는 《경제 원조 계획》을 실현한다는 간판 밑에 사실 상 남조선 경제 명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체 경제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경제 원조》에 의한 미제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는 《원조》 물자의 도입과 분배, 《대충 자금》의 사용 및 기술적

예속 등 각종 방법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한편 남조선 괴뢰 지배층은 미국의 《원조》를 구걸하는 대'가로 일련의 매국적 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미국 독점 자본의 무제한한 전횡을 허용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 주었다.

미제와 괴뢰 지배층에 의한 남조선 《기간 산업》의 지배의 강화, 예속 자본의 육성은 민족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민족 자본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되였다.

오늘 남조선 민족 자본의 령세성, 취약성은 그의 반영으로 된다.

남조선 민족 자본은 경제적 규모로 볼 때 기본적으로 종업원 5 명 이상 150~200 명을 망라한 기업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규모의 기업들은 남조선의 가공 공업 부문 기업소 총수의 99%, 종업원 수의 약 65%, 생산액의 근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 부문에서는 기업체 수의 약 85%, 종업원 수의 30%, 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족 자본은 이 외에 건설, 토건 및 운수 부문에서도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며 상업 류통 특히 소매 상업에서는 그의 지위와 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 계급으로서의 남조선 민족 자본은 그의 경제적 및 정치적 처지로 보아 다음과 같은 계층들로 구분할 수 있다.

1. 령세 기업가; 민족 자본의 하층을 의미하는 이들은 소부르죠아지에 가까운 처지로서 불과 몇 명 안 되는 렴가한 로동력을 채용하여 령세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령세 기업가들은 수'적으로는 민족 자본가들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의 경제력의 취약성으로 하여 부단히 령락되며 수공업자 및 반실업자로 전락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반제적 측면은 다른 계층보다 강하다.

2. 민족 자본의 중간층; 이들은 민족 자본의 기본 부분을 이룬다. 산업에서 10 명 이상 100 명 미만의 종업원을 망라한 기업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부류의 기업가들은 기업 경영의 경험과 능력이 있으나 미제와 예속 자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부단히 몰락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류 자본가들의 반제적 측면도 또한 강하다.

3. 민족 자본의 상층; 이들은 종업원 100 명 이상 150~200 명을 망라한 기업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일방으로는 미제와 예속 자본의 압박을 받으며 타방으로는 미제의 회유 기만 정책으로 되는 《중 소 기업 육성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정책》에 기초하여 군사 《정권》이 방출하는 약간의 《중 소 기업 육성》 자금은 50 개의 《시범 공장》을 비롯한 일부 중 소 기업 상층에 집중됨으로써 사실 상 그것은 《선전적 효과》를 얻으며 새로운 지지자의 육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이 부류의 민족 자본가들의 심한 동요성을 조건 짓는다.

최근 시기 민족 자본의 더욱 급속한 파산은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통치 지반을 유지하려는 괴뢰 《정권》의 가혹한 수탈 정책과 관련된다.

박 정희 도당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적 파국과 생활고로 인한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고 자기의 통치 체계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5 개년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밑천도 없이 간판만 내걸은 이 《계획》은 자금난으로 하여 파탄되였으며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실시한 《통화 개혁》이 실패됨으로써 통화 팽창, 물가 등귀 등 류통과 소비면에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박 정희 도당은 진동하는 자기의 통치 지반을 재수습할 목적 밑에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긴축》을 강화하였다.

《긴축 정책》의 중심은 재정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한편 세금 수탈을 강화하여 재정 적자를 메우며 금융 자금의 방출을 제한하며 민간인들의

수중에 있는 화폐를 최대한으로 걷어 들이는 데 있으며 생산 자금의 축감, 물가 등귀의 인위적 억제 등으로 인플레 추세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박 정희 도당에 의한 민족 자본의 파산의 촉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첫째로, 괴뢰군 유지비 충당을 위한 막대한 조세의 부담과 관련된다.

괴뢰 정권은 침략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하여 괴뢰군을 증강하고 그를 유지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세금 증가로써 해결하고 있는바 196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25%나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하게 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민족 자본가들의 조세 부담을 격증시켰으며 다른 편으로는 인민 대중의 구매력을 더욱 감퇴시킴으로써 민족 자본의 파산을 촉진시켰다.

둘째로, 괴뢰 《정권》의 이른바 《5 개년 계획》의 파산과 관련된다.

《5 개년 계획》은 자재와 자금의 압도적 부분을 기간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첫해인 1962년에 재정 자금의 40%와 수입 물자의 33%를 새 공장 《건설》에 돌리기로 하였으며 반면에 중 소 기업소에는 소요 자금의 16 분의 1에 불과한 10억 원을 방출하고 원료 공급에서도 대기업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기업소 수의 10~15%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공급하게 하였다.

괴뢰 《정권》은 《5 개년 계획》이 파탄되고 경제적 혼란이 심화되자 《경제 성장 제 1 주의》를 《경제 안정 제 1 주의》로 전환시켜 외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수입을 축감하였는바 이는 주요 원료의 부족과 그의 가격 등귀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민족 자본가들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끝으로 괴뢰 《정권》의 가혹한 경제 정책과 함께 특히 지난해의 극심한 식량 위기와 관련된다. 식량 위기는 쌀값의 폭등을 통한 기타 일련의 물가 등귀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공업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격감시키게 함으로써 민족 자본의 파산을 촉진시켰다.

이와 같은 사정들로 하여 급속히 파산 몰락되고 있는 남조선 민족 자본은 일련의 경제적 특징들을 떠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경제적 자립성의 상실이다.

민족 자본이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수단을 자국 내에서 공급받아야 하며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조선의 민족 자본은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발전하는 것 만큼 경공업의 발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민족 자본이 경공업에 기초하여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한편으로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 즉 중공업 발전이 보장되여야 하며 다른 편으로 농업이 원료와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제 통치의 악결과인 중공업의 락후성, 해방 후 북반부 중공업에 의한 지원의 가능성의 상실, 미제의 가혹한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경제 토대는 전면적으로 약화되였다. 1961년 말 현재 가공 공업 생산에서 금속 기계 및 화학 등 《중공업》 부문의 비중은 19.3%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기계 제작 공업은 4%였다. 이것은 1960년도 북반부의 공업 총 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비중이 21.3%에 달한 것과 대조적인 사실이다. 과거 소요 조면의 94%와 대마, 아마, 잠견의 거의 전량을 경공업에 공급하던 남조선 농촌은 오늘 공업 원료는 고사하고 기본 식량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여 해마다 500만~800만 석의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또한 남조선 민족 자본은 극히 락후한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고 있다. 기업들의 기술 설비의 령세성은 그것이 극히 유치한 수준에 처해 있으며 류동 자본이 고정 자본을 수 배나 릉가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1959년 현재 남조선 가공 공업에서의 공장 당 전동기 마력수를 보더라도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들은 평균 434.2 마력, 종업원 5~99 명의 기업체들은 11.5 마력에 불과하다. 종업원 1 인당 전동기 마력수는 전자의 경우에 1.86, 후자의 경우에 0.86이다. 광업에서의 기술 장비도의 질적 지표로 되는 종업원 1 인당 전력 구입비를 본다면 종업원 200 명 이상의 대기업이 393 원, 종업원 5~49 명의 기업들은 66 원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 소 기업 간의 전력 단가의 차이를 본다면 이 관계는 더욱 심한 것으로 된다.

남조선 민족 자본은 또한 원료, 자재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거하고 있다.

남조선 공업의 주요 원료들인 인견사, 원모, 원당, 유류, 원면, 가성 소다, 세멘트, 강재 등은 거의 미국에서 공급 받고 있는 형편이다.

민족 자본의 의존성은 원료, 자재만이 아니라 재정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광범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남조선 금융 활동의 거의 전반을 통제하는 《대충 자금》의 조정 하에 움직이는 관제 《중 소 기업 은행》이 민족 자본가들의 금융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일례로 된다.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융자 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부 중 소 기업만이 관제 《은행》 자금 리용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중세기적 고리대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중 소 기업가들의 관제 《은행》에 의존하려는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 상태의 락후성과 그의 부단한 악화는 남조선 민족 자본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민족 자본의 중 소 기업들은 대체로 초기 자본주의를 방불케 하는 개인 기업체들이다. 종업원 5 명 이상 100 명 미만의 중 소 기업체들 중에서 단체 및 법인 기업들은 12.1%에 불과하고 87.9%라는 압도적 부분이 락후한 고립적인 개인 기업 경영 형태들이였다. 그리고 12.1%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 기업체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이 비록 주식 또는 합자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 상 이것은 괴뢰 정부의 조세 및 기타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며 전형적인 법인 기업체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체들이 많다. 례컨대 1960년 말 현재 종업원 5~9 명을 가진 령세 기업체 중 단체 및 법인 기업체 수는 529 개에 달하였는바 이것들은 본질 상 령세 자본가—소생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련합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 자재는 대기업 《우선주의》에 의하여 예속 자본가와 《관영》 기업들에 집중 공급됨으로써 민족 자본의 원료난을 격화시키고 있다. 현재 이들의 월 평균 자재 보유량은 지난날의 3 분의 1로 격감되고 있다. 작년에 물품세는 50~100% 인상되였는바 이는 원료, 자재의 부족과 결부되고 있다.

민족 자본가 상층에 대한 자금의 집중 방출은 대부분의 기업체들을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였으며 고리대에 얽매여 놓았다. 오늘 남조선 중 소 자본의 83%가 고리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바 이들은 높은 고리대 리자와 조세 지불에 의하여서도 기업 리윤의 거의 전액 지어는 투하 자본의 일부까지 상실하고 있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또한 부단한 분화와 령세화이다.

식민지 산업의 일반적 특징으로서의 령세성은 남조선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적 수탈의 가혹성에 있는바 수출을 20 배로 릉가하는 수입 상품의 범람, 군사적 수탈의 강화 및 농촌에서의 봉건 잔재의 유지 등 사정과 밀접히 결부된다.

1960년에 남조선 가공 공업 부문에서 종업원 5~29 명을 가진 소규모 및 령세 규모의 기업들은 기업체 총수의 88.9%나 되며 기업체 수의 과반수인 55.4%가 종업원 5~9 명의 령세 기업들이다. 령세 기업들의 기업체당 고용 로동자 수는 4.2 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민족 자본가들은 한편으로는 미제와 괴뢰 도당 및 그와 결탁한 예속 자본가들의 압박에 의하여, 다른 편으로는 그들 호상간의 경쟁에 의하여 부단한 분화 과정을 겪으면서 파산 몰락되여 가고 있다.

그 외에 괴뢰 《정부》의 강권에 의한 제압은 민족 자본의 급속한 파산을 조전 짓는다.

괴뢰 《정부》는 《생산 신고제》에 불응하는 약 60%에 해당하는 중 소 기업들에 대하여 융자를 중지하며 《중 소 기업 협동 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65%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원료 배정을 중지하며 《위생 시설 불비》, 《기준 미달》 등의 구실로 강제 폐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중 소 기업들의 이와 같은 파산 몰락은 기업들의 부단한 령세화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가공 공업 기업소 규모별 동태(%)

년도	종업원 수			계
	5~49 명	50~99 명	100 명 이상	
1948	87.5	7.1	5.4	100
1955	92.1	5.1	2.8	100
1959	93.5	4.0	2.5	100
1960	94.5	3.1	2.4	100

남조선 민족 자본은 경제의 심한 침체와 미제가 반입하는 잉여 물자의 품종 구성의 변동과 관련하여 특히 부문간의 심한 류동을 나타내고 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은 조건에서 얼마 안 되는 고정 자본을 내던지고 보다 유리한 부문으로 이동하며 이 업종으로부터 저 업종으로, 산업으로부터 상업, 써비스업 등으로 부단히 류동하면서 만성적인 침체와 몰락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 민족 자본의 이와 같은 경제적 특징은 일련의 정치적 특징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치적 면에서 민족 자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미제와 괴뢰 도당들에 대한 증대되는 불만이다.

해방 후 18 년간에 예속 자본과 민족 자본 간의 경제력의 간격은 실로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였는바 이는 그들 간의 자유로운 경제적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제에 의한 예속 자본의 육성과 민족 자본의 직접적 억압의 결과이다. 민족 자본가들은 미제에 의한 민족 경제의 전면적 파탄과 잉여 상품 시장화 정책, 증대되는 군사비 부담, 생산 자금의 심한 차별적 공급, 기만적인 《중 소 기업 육성 정책》, 《생산 신고제》 등 각종 경제적 통제에 대하여 큰 불만을 품고 있는바 이는 그들의 반제적 진출의 기본적 요인이다.

민족 자본가들은 최근 시기 미제의 조종 하에 재생된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진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기술이 발달한 일본 자본이 들어 오는 날에는 한국의 중 소 기업은 다 망한다》고 하면서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책동을 비난하고 있다.

민족 자본의 정치적 특징의 다른 하나는 반제 투쟁에서의 그의 제한성이다.

민족 자본의 2 중성은 남조선의 경우에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부르죠아지인 만큼 반제 투쟁에서 불철저성과 동요성을 극복할 수 없으며 자기의 취약한 경제적 및 정치적 력량으로서 자주적인 자본주의 발전 즉 민족 부르죠아지 한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제기조차 할 수 없다. 이들의 반제 투쟁은 오직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반제 반봉건 력량에 의거해야 한다.

반제 투쟁에서의 민족 부르죠아지의 제한성은 중 하층에 비하여 상층에서 더욱 심하다. 민족 자본의 상층은 미제와 괴뢰 도당 및 예속 자본의 압박에 대해서는 중 하층과 함께 불만을 품는 동시에 괴뢰 도당들의 중 소 기업 각 계층에 대한 차별 대우와 관련하여 지배

층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발로시킨다.

그러나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략탈 정책과 대기업 《우선주의》의 강화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민족 자본가들은 반제적 측면이 강하며 중 하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끝으로 민족 자본의 정치적 동향에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는 것은 북반부에 확고히 수립된 자립 경제에 대한 열렬한 동경이며 남북 합작에 대한 지향이다.

종래의 모든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로동 계급은 자체의 물질적 지반이 거의 없는 형편에서 민족 자본가들과 함께 싸워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사회 경제적 조건은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사회주의 진지에 의거하여 민족 자본가들과 함께 반제 투쟁을 진행하며 그들에게 일련의 물질-기술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남북 합작에 대한 방안이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광범한 민족 자본가들에게까지도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경제적 지위의 근본적 개선을 담보하는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기인된다.

※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 경제의 파탄과 민족 시장의 페쇄는 민족 자본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 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남조선 민족 자본이 오늘의 파국에서 구출되는 유일한 출로는 외세의 배격, 자립 경제의 확립인바 이것은 남북 합작으로써만 가능하다.

남조선의 농업과 북조선의 강력한 공업을 련결시키며 북조선의 중공업의 방조 하에 민족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격감시켜 심각한 자금난과 판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주 경제의 물질적 지반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 민족 자본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 력량과 단합하여 미제를 구축하고 괴뢰 도당 및 예속 자본가들의 증대되는 압박을 반대하며 남북 합작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조선 민족 자본가들이 경제적 파산에서 벗어 나며 민족적 권리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문답학습

중근동의 석유와 제국주의

중근동은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를 련결하는 접촉점에 놓여 있으며 동서로는 이란으로부터 지중해, 남북으로는 토이기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중근동은 오래 전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 왔으며 그들 간의 모순과 충돌의 초점으로 되여 왔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총 매장량의 70%를 넘는 풍부한 석유가 바로 이 지역에 매장되여 있으며 그 채굴 조건이 좋고 국제 해상 및 륙상 교통도 좋으며 또한 이 지역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기 위한 군사-전략 상 중요한 요충 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근동의 석유 지대는 애굽,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카다르, 바레인, 이란, 레바논 등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며 그 길이는 2,000 키로 메터를 훨씬 넘는다. 1960년 초 현재 이 지역에서 판정된 석유 매장량은 244억 2,500만 톤에 달하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탐사된 석유 총 매장량의 4 분의 3에 해당한다.

매장량에서 뿐만 아니라 채굴량에 있어서도 중근동은 자본주의 세계의 석유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57년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생산된 석유 (7억 7천만 톤) 중에서 중근동이 차지한 비중이 4 분의 1(1억 7천 800만 톤)이였다면 1962년에는 그것이 3 분의 1에 달하였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중근동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을 능히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중근동의 석유는 값 눅게 강제 채용된 이 지역 로동력에 의하여 채굴되므로 막대한 추가 리윤을 제국주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958년 미국 잡지에 의하면 당시 미국에서 석유 1 바렐의 원가는 1 딸라 12 센트였는데 쿠웨이트에서는 5 센트에 불과했다. 이로부터 서방 석유 독점체들은 해마다 15억 딸라의 추가 리윤을 얻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식민주의자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석유 리권의 확보와 그의 확대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경쟁적으로 이 지역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중근동 인민들의 민족적 재부로 되고 있는 풍부한 석유는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자석》이기도 하였다.

제 2 차 대전 전에 중근동은 주로 영국의 지배 하에 있었고 매우 적은 부분의 석유 리권만이 독일, 불란서, 화란 등의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었다.

그러나 중근동의 풍부한 석유 자원에 대한 영국의 독점적 지배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석유 리권은 제국주의자들의 맹렬한 리권 쟁탈전을 거쳐 재분할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뒤늦게 이 쟁탈전에 참가한 미국 석유 독점체들은 제 2 차 세계 대전 전까지 바레인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영국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석유 채굴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으며 쿠웨이트에서는 50%의 석유 리권을 차지하게 되였다.

그러나 미국 독점체들이 중근동 지역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제 2 차 대전 후부터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2 차 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 호상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중근동에서의 그들 호상간에도 심각히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는 전후 군사-경제적으로 심히 약화된 영국 세력을 중근동에서 배제하며 이 지역 석유에 대한 리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영국과 대결하는 길에 들어섰다. 당시 미 국무 차관 웰레스가 《전후 시기 중근동 석유 문제는 미국에 있어서 사활적 문제로 제기된다. 모든 문제는 미국과 영국 정부 간의 맹렬한 투쟁에 귀착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미국 석유 독점체들은 전후 불과 몇해 동안에 중근동 석유 리권 분배에서 영국을 압도하게 되였다. 1960년에만 하여도 미국은 중근동 석유 채취의 52.5%, 영국, 화란이 37.2%, 불란서가 6.6%를 차지하였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의 석유 문제는 중요한 정치 문제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다. 중근동에서의 복잡한 정세는 그 어느 하나도 석유 문제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 중근동 인민들과 제국주의자들 간, 이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은 언제나 석유 문제를 둘러 싸고 벌어지고 있다. 례컨대 미제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 나라 북쪽에 있는 부라이미 오아시스 문제를 둘러 싸고 발생한 이 나라와 영국 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영국의 영향을 배제하였으며 중근동의 기본 석유 산지와 직접 린접하고 있으며 지중해에로의 석유 수송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씨리아에 대해서도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였다. 영국은 미국의 이러한 팽창 정책에 대처하여 씨리아 정부로 하여금 씨리아를 통과하는 미국의 송유관 건설을 방해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한편 미국은 1949년 3월 매판 부르죠아지인 씨리아군 참모장 후스니 아스 자임을 사촉하여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미국 회사의 송유관 건설을 승인케 하였다. 그러나 동년 8월 영국은 씨리아에서 자기 세력을 부식하기 위한 정변을 다시 조직하고 친영 분자인 싸미 헤나우이 대좌를 위수로 하는 군사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이전 정권의 친미 정책을 페기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 지역에서 영 미 간의 모순은 일층 격화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내부적으로 반정부 음모를 부단히 강화하여 마침내 1949년 12월에 친미적인 아디브 쉬쉐클리를 집권케 함으로써 미국 석유 독점체들의 경제적 침투를 보장하였으며 1950년에는 송유관 건설이 완성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석유 리권 쟁탈전에서 미제는 중근동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거기에서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과 불란서와 기타 제국주의 국가 독점체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면서 중근동의 새로운 지배자로, 새로운 략탈자로 등장하였다.

이라크에서 혁명(1958년)이 일어 난 다음 날에 미국 군대는 레바논의 해안을 점령하고 중근동의 석유를 잃을 것을 두려워 로골적으로 무기를 휘둘렀으며 예멘에서 혁명이 있은 후에 미제는 자기의 《아람코》 석유 회사의 운명을 《격정》하여 반혁명 분자들에게 무기와 군사 기재를 제공하였다.

미제는 1950년부터 10 년간에 이란에 5억 딸라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1962년 4월에는 이란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고 이란의 군사 방위 상 일체 문제를 자기의 지배 하에 넣었다.

1962년 1월부터 5월 말까지만 하여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7,500만 딸라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호크 지상대 공중 미싸일을 공급하고 있다.

오늘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과 중거리 미싸일 기지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다량의 군사 설비들을 반입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중근동에서 저들의 석유 리권을 유지 확대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악랄성을 명백히 보여 준다.

미제와 함께 영 제국주의자들도 중근동에서의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르단과 예멘 및 오만에 자기의 군대를 파견하고 군사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오늘은 주로 자기 력량을 페르샤만 지역에 집결하고 석유 채굴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정변(1963.2)이 일어 난 후 서방과 아랍의 출판물들에는 이 사건에 제국주의 세력이, 특히는 미국 석유 독점체들과 련결된 자들이 관여하였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카셈은 민족 석유 회사를 설치할 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결정이 발표된 수일 후에 정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반란자들은 정변 당일에 외국 석유 회사들은 《이라크에서 석유 자원을 리용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질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정변 후 2 주일 후에 미국 석유 회사 대표 며피는 회담을 하기 위하여 바그다드에 도착하였다.

제반 사실은 정변의 진정한 조종자가 누구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파리 쥬르날》지에 게재된 타부이의 론설에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미 국무성 고문들은 카셈이 아랍 동방에서의 미국의 웅대한 계획 실행 도상에 주요 장애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웅대한 계획》이란 아랍, 씨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과 팔레스티나,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그리고 남아라비아 공국을 망라하는 《련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계획은 근동의 아랍 석유의 모든 원천의 통합을 념두에 두고 있다》고 썼다.

이것이 중근동에서의 식민지 재분할과 영국 경쟁자들의 구축 그리고 이 지역 전체 석유 자원의 독점을 위한 미제의 계획이라는 것을 간파하기 어렵지 않다.

미제의 이러한 략탈적 계획과 석유를 둘러싼 서방 제국주의 렬강 간의 암투는 중근동에서의 정치 정세를 긴장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오늘 중근동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도탄 속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사실 상 석유'더미 우에서 살고 있는 중근동 인민들에게 있어서 등유조차 구매하기 힘든 것이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 형편이다. 석유 로동자들은 사막의 염천 아래에서 매일 12~18 시간의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임금은 기아 임금 수준을 넘지 못 하고 있다. 미국 독점체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수억 딸라의 순리익을 얻고 있을 때 사우디 아라비아의 인민들은 세계에서도 류례가 없는 빈궁한 처지에서 헤매고 있다. 이 나라에는 학교와 병원이 거의 없으며 대다수 청년들은 글을 모르며 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근동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거세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으로부터 석유 주권을 탈환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로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의 결과 국회는 석유 국유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로동자들은 총 파업을 단행하여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는바 반제 강령을 가진 《민족 혁신 전선》을 조직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지역 기타 나라들에서도 반제 투쟁이 날로 앙양되고 있다.

각성된 중근동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략탈자들은 마침내 이 지역에서 쫓겨 나고야 말 것이며 중근동의 풍부한 석유 자원은 인민들의 수중에로 돌아 오고야 말 것이다.

김 봉 환

건설에서의 현물 평가제

최근 우리 나라 각지의 건설 기업소들에서는 현물 평가제가 급속히 도입 일반화되고 있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가 심화 발전하는 과정에 창조된 현물 평가제는 이 부문의 기업 관리 운영을 가일층 개선하며 작업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현물 평가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건설 기업소와 로동자들의 계획 수행에 대한 평가를 현물 실적에 의하여 진행하는 방법이다. 즉 그것은 매개 건설 대상을 단위로 현물량, 조업 개시 기간, 원가 저하 과제 등 지표를 설정하고 그를 얼마 만큼 잘 수행하였는가에 의하여 작업에 참가한 집단과 그 성원들의 생산 성과를 규정하며 로임도 그에 적응하게 주고 거기에서 조성되는 리익금은 그들에게 직접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물 평가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는 몇 천 원 혹은 몇 만 원의 금액상 계획을 수행하였는가 보다도 몇 동의 주택, 몇 개의 구축물 등을 얼마만한 기간 내에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현물 평가제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건설 대상의 조업 개시 계획 기간과 원가 계획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국가 과제를 완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달성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조업 개시 기간은 보장하였는데 원가 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였거나 원가는 저하시켰지만 조업 개시 계획 기간을 준수하지 못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 손실액을 그 작업에 참가한 직장 또는 작업반이 부담하게 된다.

그 대신 건설 기업소는 상기의 두 가지 지표를 모두다 잘 수행하였을 때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해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준공된 대상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공사에 참가하였던 전체 성원들이 책임지게 된다.

현물 평가제에서 개별적 로동자들의 로임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수행한 작업의 량에 따라 월별로 지불하고 그 일부는 공사가 끝난 후 확정 지불(청산)하며 그들의 사업 성과는 점수 평가제에 의하여 규정한다. 점수 평가는 작업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의 참가 하에 집체적으로 진행되며 매개인이 수행한 현물 작업량, 질 보장 정형 뿐만 아니라 시공 활동과 집단 생활에 이르는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따라서 점수는 건설 작업에서 로동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척도로서, 작업반이 번 로임 총액에서 그들의 몫을 규정하는 분배의 척도로서 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사회적 평가의 기준으로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물 평가제는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추진 및 원가 저하 과제의 수행과 직접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더 잘 관철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현물 평가제가 건설 부문의 계획화에 현물 지표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는 동시에 다른 부문들에서 이미 도입 리용되고 있는 작업반 우대제의 기본 원칙을 건설 부문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것임을 말하여 준다.

현물 평가제의 거대한 우월성은 무엇보다 먼저 집중적인 건설을 보장하고 건설을 정상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케 한다는 데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로동 지출의 결과가 하나의 완성품으로 되여 나올 때까지 비교적 긴 기간이 요구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작업이 반복 진행되지 않고 작업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데로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총화할 때 건설 조립 작업액과 같은 가치 표시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여 왔다.

이것은 일부 건설 기업소들로 하여금 건설 조립 작업액을 높이기 위하여 로력은 적게 들고 금액 상 실적이 높은 공정을 따라 다니면서 공사를 계획하고 작업을 조직하는 데 치중케 함으로써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건설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 데서 일정한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현물 평가제를 실시하는 조건에서 모든 건설자들은 오직 자기들에게 맡겨진 건설 대상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좋게 그리고 값 눅게 건설하겠는가에 관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조업 개시 기간을 단축하고 미완성 건설의 투자 실적을 최대한 축소시키며 건설 대상의 빈번한 이동과 건설 순위의 위반과 같은 현상을 근절시킨다.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한 이후 그 전에 비하여 건설 대상수를 42%로 축소하고 주택 동당 평균 조업 개시 기간을 34.6%나 단축하였으며 월 평균 미완성 투자 실적을 35%나 감소시켰다는 사실은 그것을 단적으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현물 평가제의 실시는 광범한 건설자 대중을 계획의 작성으로부터 생산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기업 관리 운영의 모든 측면, 모든 령역에 직접 참가시킴으로써 기업 관리에서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비상히 제고시킨다.

사실 상 현물 평가제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바로 작업 수행과 원가 저하 정형, 로임과 상금의 확정 등 모든 사업을 대중들 자신의 직접적인 참가 하에 진행한다는 거기에 있다.

현물 평가제가 대중을 기업 관리에 보다 광범히,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평양 동구 지구 종합 주택 건설 사업소의 경험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지금 이 기업소의 매개 직장, 작업반들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다 사회적 계산원, 자재 관리원, 기공구 관리원, 로력 관리원, 질 검사원, 로동 안전원 등 한 가지 이상의 분공을 맡아 자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자재의 인수와 소비 실적, 출근 상태의 장악 등 기업 관리 운영의 많은 측면이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하여 대중적으로 해결되게 되였으며 일'군들 속에서 일을 찾아 하고 만들어 하는 창조적인 기풍이 더욱 활짝 꽃 피게 되였다.

현물 평가제의 도입은 또한 기본 건설 부문의 계획화 실무에서도 커다란 개선을 가져 오게 한다.

현물 평가제는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현물 지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 부문의 계획화 사업과 관리 운영 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을 위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현물 평가제의 도입이 기본 건설 부문에서 대안 사업 체계의 요구를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그러면 현물 평가제를 정확히 도입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전체 건설자 대중들에게 현물 평가제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를 도입하는 사업에 대중들 자신이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현 시기 기본 건설 부문의 계획화와 이 부문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 적용의 새 짝인 현물 평가제가 성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의 지도 일'군들은 이미 개편된 새로운 건설 관리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그것은 현물 평가제의 도입 자체가 그 어떤 내부 결재 계산이나 통계 보고 체계의 단순한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 건설 부문에서 대안 사업 체계의 요구를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물 평가제는 오직 우가 아래를 책임지고 도와 주는 사업 체계와 그에 상응한 사업 방법이 확고히 수립될 때에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이 부문의 지도 일'군들이 현물 평가제 단위에 직접 내려 가 사업을 배워 주고 조직하여 주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밖에도 현물 평가제의 성과적인 도입을 위하여서는 그의 적용 대상과 단위의 설정, 내부 계획화와 계산 체계의 개선, 실행 예산서를 포함한 일체 설계 문건의 선행 등 일련의 실무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여야 한다.

현물 평가제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건설 대상이 건설주에게 인도될 수 있으며 시공비를 계산할 수 있는 개별적인 건설 생산물별로 되여야 한다.

이를 테면 주택, 공공 건물 등 건축 공사에서는 개별적인 동이, 시설과 토목 공사 등에서는 설계 예산서 작성의 단위인 개별적 대상 및 구축물이 현물 평가제의 적용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건설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그의 공사 수행 기간이 장기성을 띠는 곳에서는 공정, 구조 요소나 구획 혹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건설주에게는 공사를 인도하지 못 하지만 직장, 작업반 성원들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정확히 평가되도록 되여야 하며 또 그 공사를 담당 수행하는 성원들을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해당 작업에서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데로부터 현물 평가제 도입의 기본 단위는 해당 건설 대상(공정, 구조 요소)을 책임지고 담당 수행할 수 있는 직장 혹은 작업반으로 되여야 한다. 현물 평가제의 도입 단위가 직장으로 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계획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반 단위로 내부 채산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계산과 평가를 제때에 정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서 현물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것은 우로부터 중앙 집중적인 통일적 지도에 기초한 전문화된 건설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이 부문 앞에 날로 더욱 큰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완전히 성숙된 문제이다.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기본 건설 부문에서 현물 평가제를 도입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함으로써 금년도 이 부문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김 윤 식

근로자 제 2 호 (루계 240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월 17일 발 행 • 1964년 1월 20일

ㄱ—430030 값 40 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피델 카스트로 루쓰

《주요 연설집》

판형 국판 예정 페지 481 페지

이 책에는 1953년부터 1963년까지의 기간에 발표된 피델 카스트로 루쓰 동지의 주요 연설들이 들어 있으며 큐바 인민의 《하바나 선언》이 부록으로 첨가되여 있다.

이 책의 첫 부분에는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법정에서 한 유명한 연설 《력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가 들어 있다. 이 연설에서 26세의 청년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는 미제의 충실한 주구인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폭행과 부패성, 그의 매국 행위를 신랄히 규탄하는 한편 앞으로 도래할 큐바 혁명의 주요 방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연설집》의 다음 부분에는 큐바 혁명 승리 후 큐바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한 연설들인 《유엔 총회 제 15 차 회의에서 한 연설》, 《양키의 직접적 침략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만약 그들이 큐바를 침공한다면 제국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등이 들어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카리브해에서의 미제의 새로운 침략 행위와 관련하여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전 세계에 폭로 규탄한 연설들인 《1962년 10월 23일 텔레비죤 방송 연설》과 《1962년 11월 1일 텔레비죤 방송 연설》을 비롯한 수편의 연설들이 들어 있다.

부록에는 미주와 전 세계 인민들에게 미제의 침략성을 폭로하며 큐바 혁명을 끝까지 사수할 결의를 다진 《하바나 선언》과 《제 2 하바나 선언》을 비롯한 공식 문헌들이 들어 있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